



발표일시:

2000년 9월 15일 신라호텔

오전 7:30- 8:30 SBS 생중계

<http://future.sbs.co.kr> 제3차 미래한국리포트 참조

발표자:

SBS 보도본부 서두원 미래부장

김상협 미래부 차장

(사회 :김소원 8뉴스 앵커)

기조연설 및 강평 :

OECD Barry McGaw 교육국장

김진표 교육부총리



목차

- Ch.1** 왜 교육인가? - 한국을 흔드는 3가지 충격
- Ch.2** 한국 교육의 현주소 : 엑소더스 코리아
 - 10대 교육불만
- Ch.3** 교육의 6가지 미래
- Ch.4** 한국의 선택, 동방 학습지국
 - 10대 제언

1

(발표: **SBS** 보도본부 미래부 김상협 차장)

이번 제3차 미래한국리포트 ‘한국의 마지막 선택, 교육-동방학습지국의 비전’은 4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제1부, 왜 교육이 한국의 ‘마지막 선택’ 인지를 영상물과 함께 보시겠습니다.(<http://future.sbs.co.kr> 참조)

이어서 2부에서는 ‘엑소더스 코리아’ 로 상징되는 교육불만의 현주소를 살펴보겠습니다.

3부는 **OECD**가 마련한 ‘학교의 6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영상물로 재구성했습니다. (<http://future.sbs.co.kr> 참조)

끝으로 4부에서는 한국 교육의 재창조를 위한 ‘동방학습지국’의 10대 제언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차

Ch.1	왜 교육인가? - 한국을 흔드는 3가지 충격
Ch.2	한국 교육의 현주소 : 엑소더스 코리아 ▪ 10대 교육불만
Ch.3	교육의 6가지 미래
Ch.4	한국의 선택, 동방 학습지국 ▪ 10대 제언

2

왜 교육인가? 한국의 기본을 흔드는 3가지 충격 때문입니다.
화면과 함께 보시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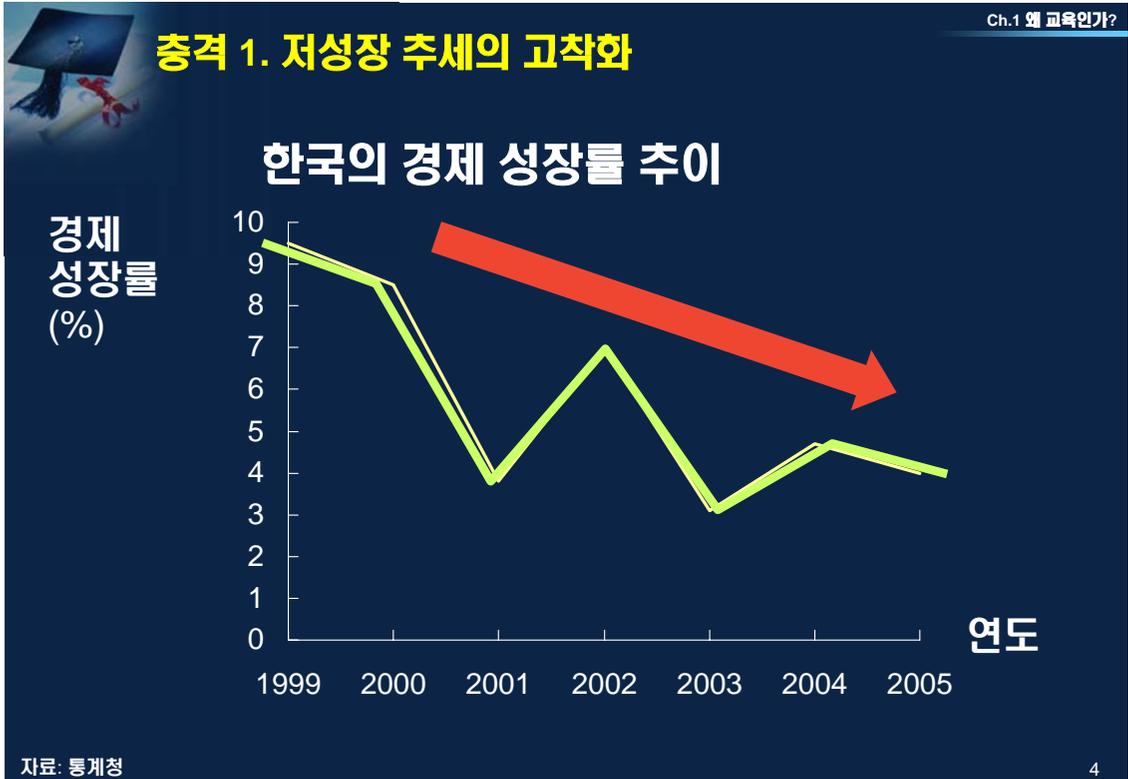
Ch.1

왜 교육인가? - 한국을 흔드는 3가지 충격

충격 1. 저성장 추세의 고착화

충격 2. 세계 최악의 저출산 고령화 추세

충격 3. 일자리 위기의 심화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저성장 추세의 고착화입니다.
8%의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한국경제의 활력은 옛말.

10년째 소득 1만 달러의 벽에 갇힌 채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서기도 전에 저성장 충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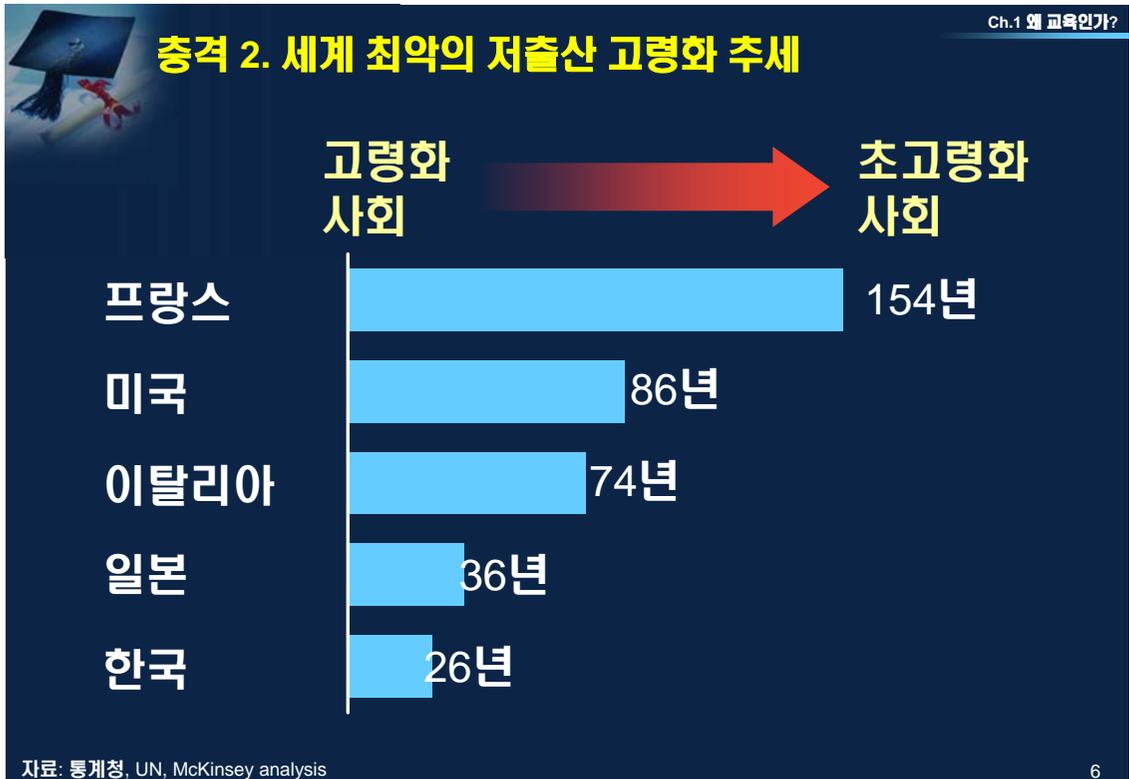
Ch.1

왜 교육인가? - 한국을 흔드는 3가지 충격

충격 1. 저성장 추세의 고착화

충격 2. 세계 최악의 저출산 고령화 추세

충격 3. 일자리 위기의 심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제1차 미래한국리포트에서 밝혔듯이 한국은 세계최저의 출산율과 평균수명의 급증에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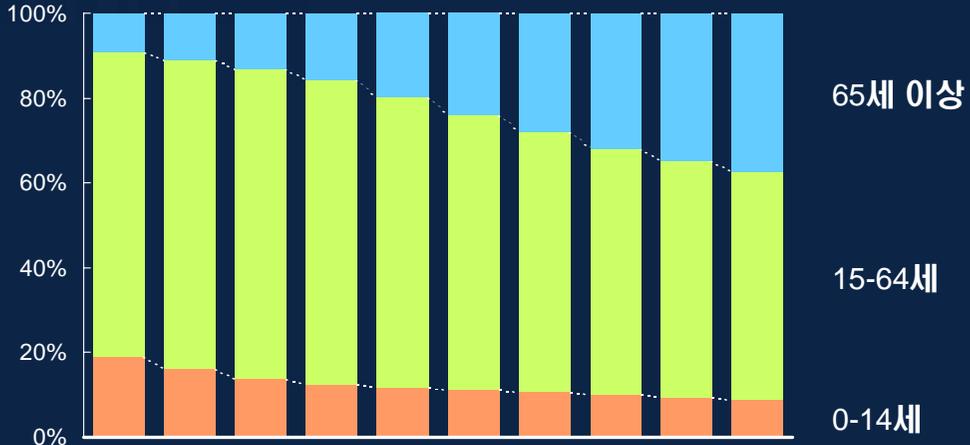
앞으로 **20년** 뒤면 **5명**중 **1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이 되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섭니다.

선진국에서 백 년 안팎이 걸린 일이 한국에서는 불과 한 세대 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충격 2. 세계 최악의 저출산 고령화 추세

생산인구의 감소와 부양부담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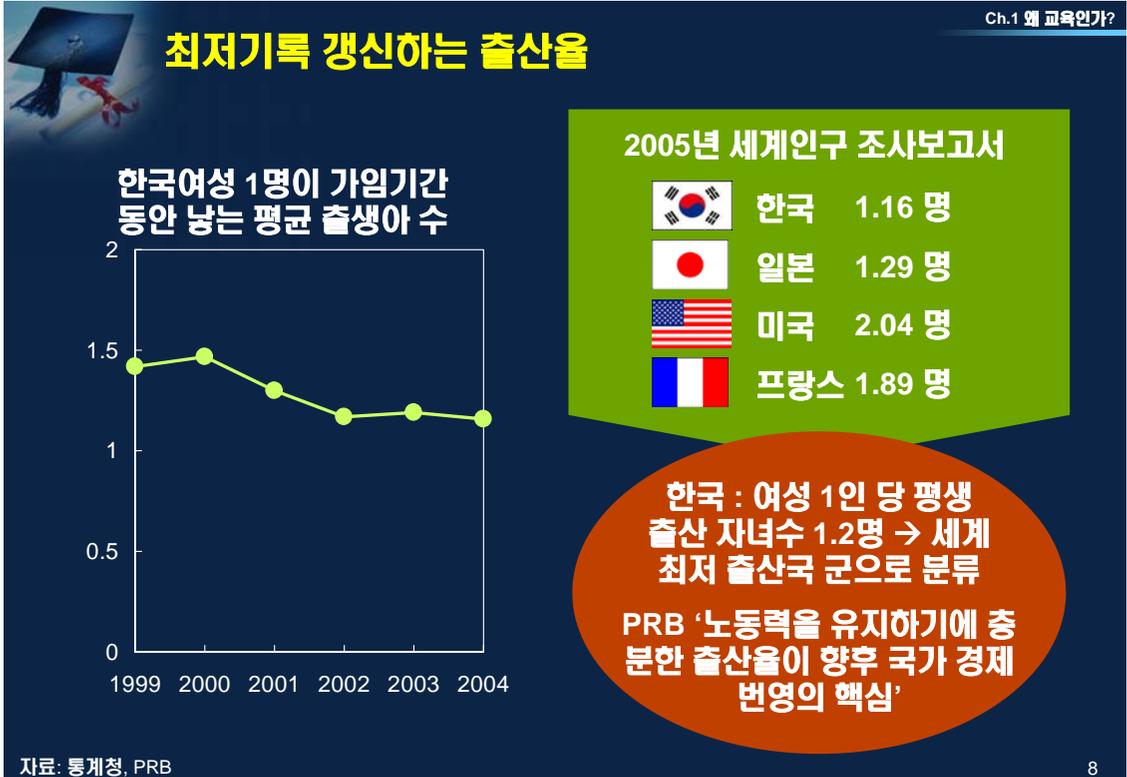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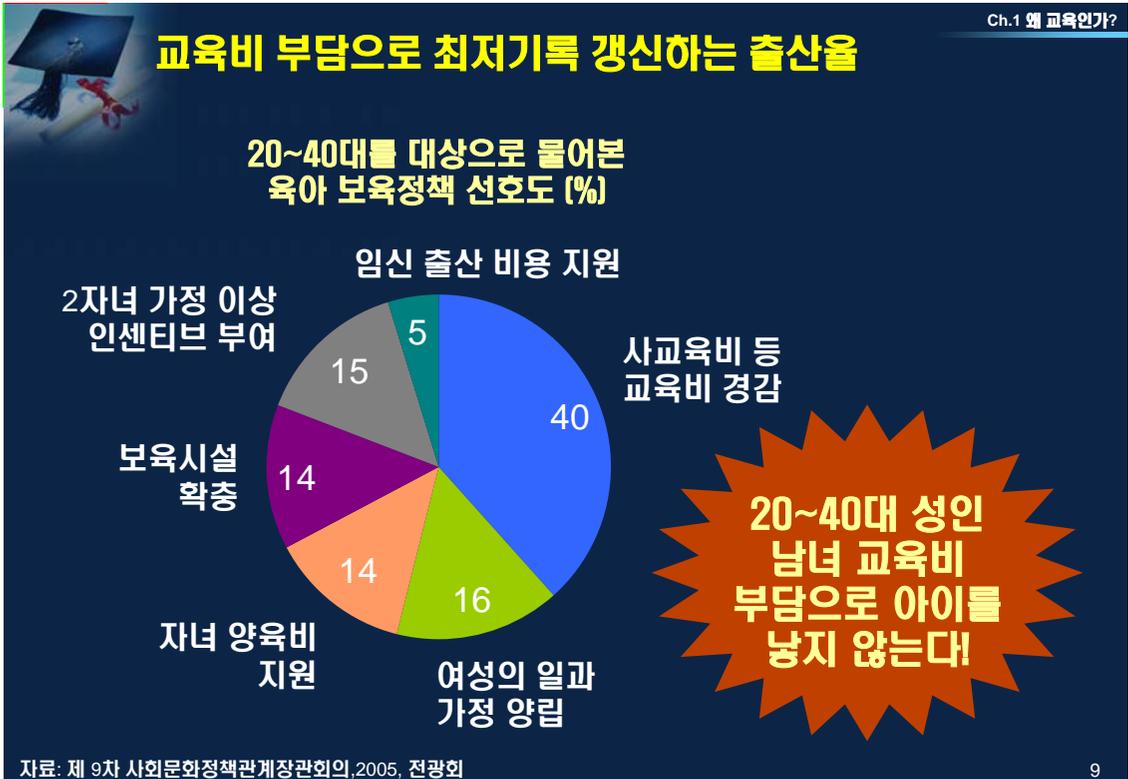
SBS와 맥킨지의 분석에 따르면 생산인구의 급감으로 **20년** 뒤면 사실상 한 사람이 벌어서 한 사람을 부양하고 수입의 절반이 각종 세금과 사회보장 비용으로 지출되는 ‘초부담(**super burden society**)’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이 같은 고령화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1-2%**로 추락할 것이란 전망마저 내놓고 있습니다. 충격이 충격을 키우는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무엇보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2005년 세계 인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출생아 수는 전년의 1.17명보다도 더 하락한 1.1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0-40대에게 물어본 결과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로 엄청난 사교육비 등 생존경쟁의 부담을 손꼽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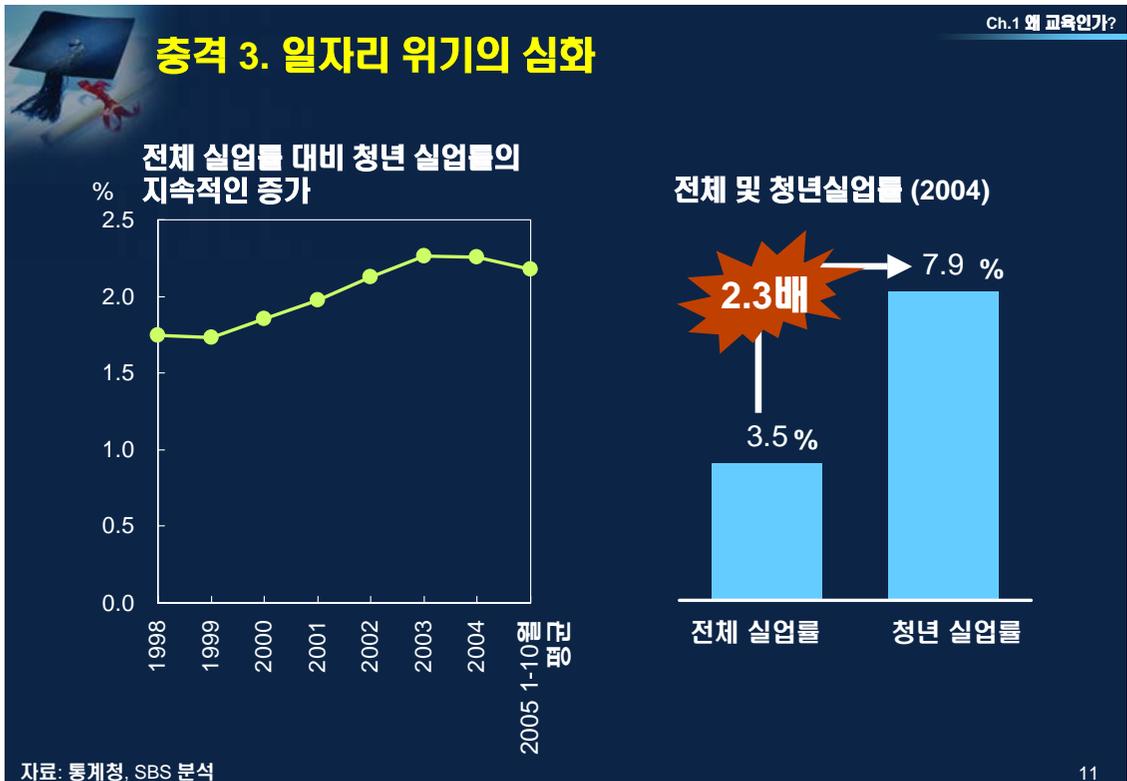
Ch.1

왜 교육인가? - 한국을 흔드는 3가지 충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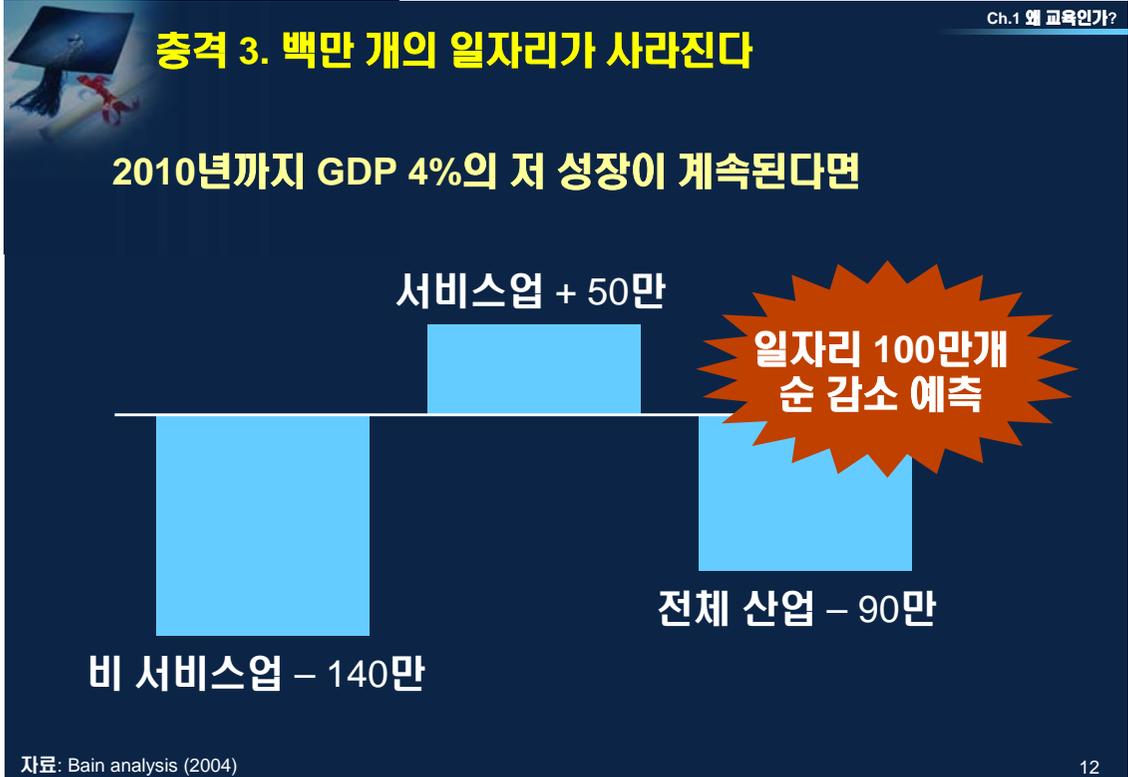
충격 1. 저성장 추세의 고착화

충격 2. 세계 최악의 저출산 고령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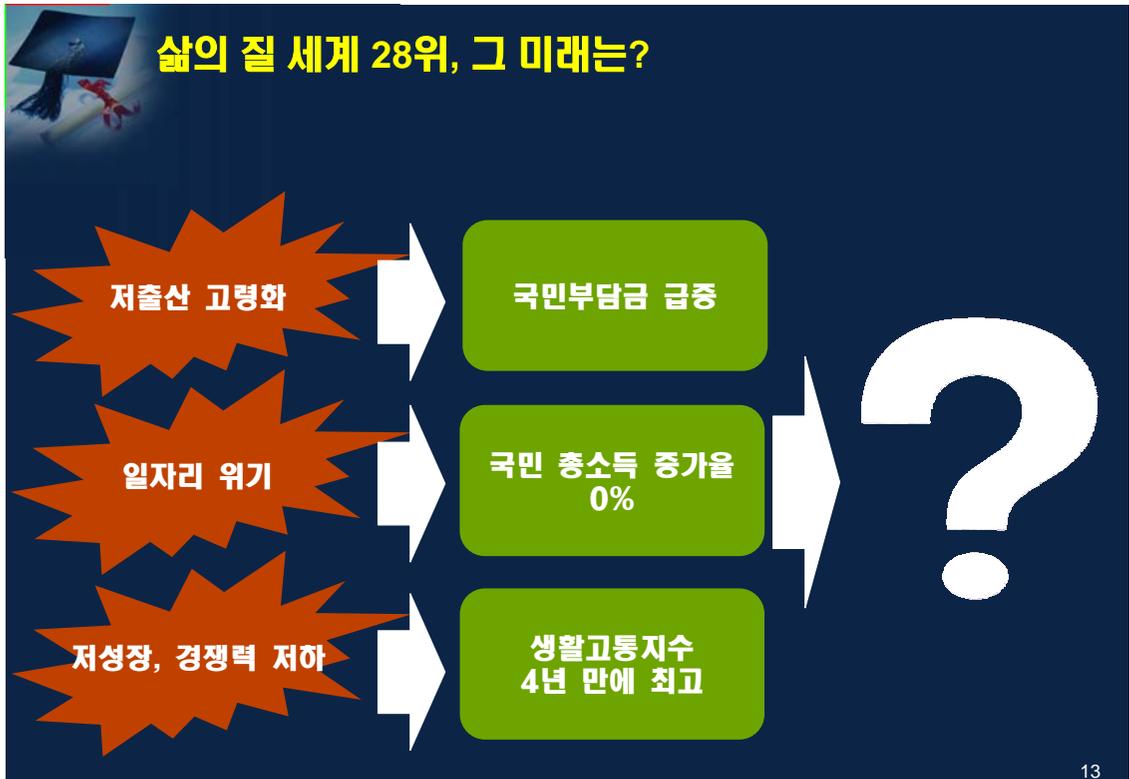
충격 3. 일자리 위기의 심화



이런 가운데 실업난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의 실업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남녀노소 전 계층으로 일자리 위기가 파고드는 양상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일자리가 늘어나기는커녕 오는 2010년까지 일자리는 90만에서 100만개 가량 순 감소 하리라는 것이 SBS와 Bain&Company의 추계입니다.



이처럼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일자리위기의 3대 충격이 한국의 기본을 흔들며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민부담금은 급증하지만 국민 총소득 증가율은 지난 2-4분기 0%에 그치고 생활물가 상승률과 체감 실업률을 합친 이른바 '고통지수'는 4년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나는 현실... 불길함마저 느끼게 하는 대목입니다.

UN 개발계획이 조사 대상 177개 국가 중 한국의 삶의 질을 2년 연속 세계 28위로 매겼지만 이대로라면 나아지기는커녕 더 추락할지도 모릅니다.



목차

Ch.1 왜 교육인가? - 한국을 흔드는 3가지 충격

Ch.2 한국 교육의 현주소 : 엑소더스 코리아
▪ 10대 교육불만

Ch.3 교육의 6가지 미래

Ch.4 한국의 선택, 동방 학습지국
▪ 10대 제언



그렇다면 우리의 활로는 어디에 있을까요. 열쇠는 교육에 있습니다. OECD는 1990년부터 10년간 1인당 GDP 증가의 절반은 ‘노동생산성’ 즉 사람에 따른 것이라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동생산성을 100으로 했을 때 미국은 161, 일본 113로 선진국에 크게 뒤지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지식경제시대의 핵심이자 일자리 창출의 보고인 고부가 서비스 산업의 경우 한국의 노동생산성(100)은 미국(217), 일본(193)과 현저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뒤집어보면 우리가 인적 자본, 즉 사람의 경쟁력을 그만큼 기울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경쟁력은 결국 교육이 만듭니다.

우리 경제를 살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최선의 선택은 교육업그레이트에 있다는 뜻입니다.

생산인구의 감소와 부양부담 급증, 생산성 격차... 교육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부담에 따른 출산율 저하... 좋은 교육 환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퇴직 대란과 재취업 애로... 역시 평생교육과 직업교육강화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교육이 살아나면 가정이 살아나고 기업이 힘을 얻고 나라의 기본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제3차 미래한국 리포트의 주제를 ‘한국의 마지막 선택, 교육’으로 삼은 이유입니다.

교육이 만들어낸 한강의 기적



2005년 기준 평균 교육연한

국가	평균 교육연한 (년)
인도	~5.5
중국	~6.5
남아공	~8.5
미국	~8.5
스페인	~10.5
한국	~12.5
프랑스	~12.5
독일	~13.5
미국	~13.5

PISA 2003
OECD의 회원, 비회원국 40여 개국 대상으로 15세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

한국 순위

- 문제 해결력 1위
- 읽기 2위
- 수학 3위
- 과학 4위

“한국의 경제적 성공은 교육이 가져왔다. 15세 연령을 보면 한국은 질적으로 매우 우수하면서도 공평한 교육 성과를 재생산하고 있다.”
- OECD 교육국장 Barry McGa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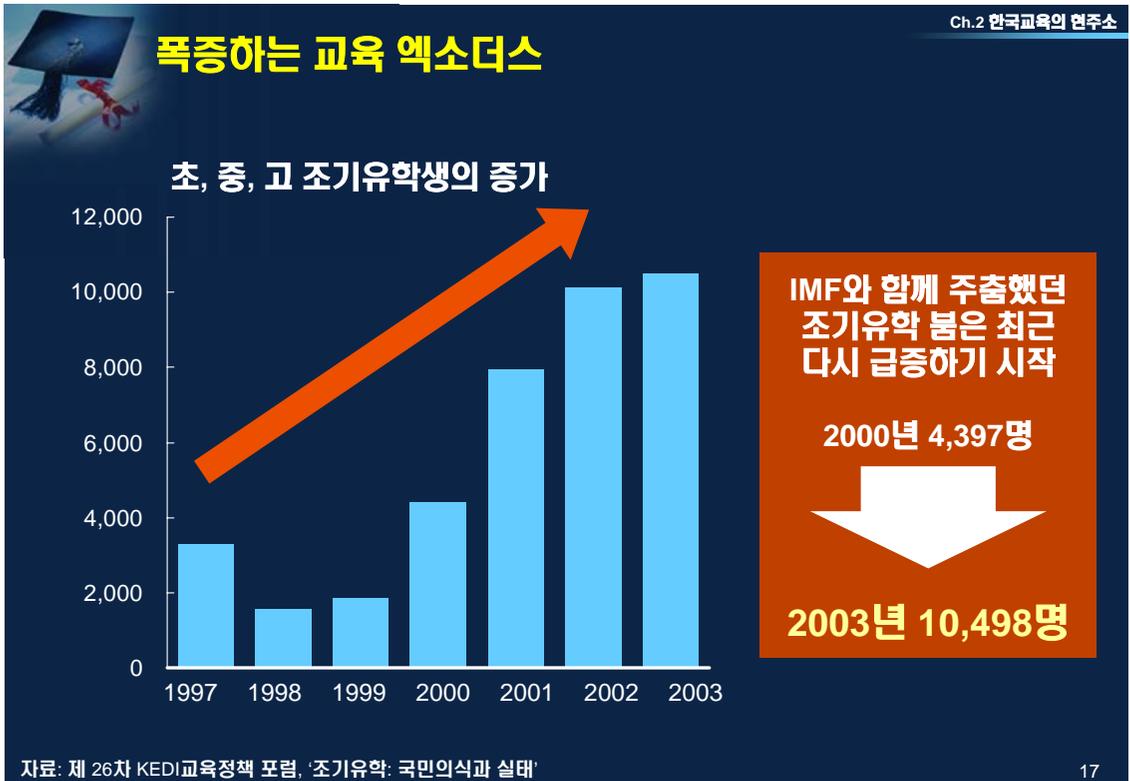
사실 그동안 우리 교육 잘 해왔습니다.

OECD 배리맥고 국장이 지적하듯 교육은 지난 반세기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원동력이었습니다.

도이체 방크 연구소는 부존자원 하나 없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이 세계 **10위** 권의 경제로 도약한 것은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교육을 최우선에 두었기 때문이라 결론짓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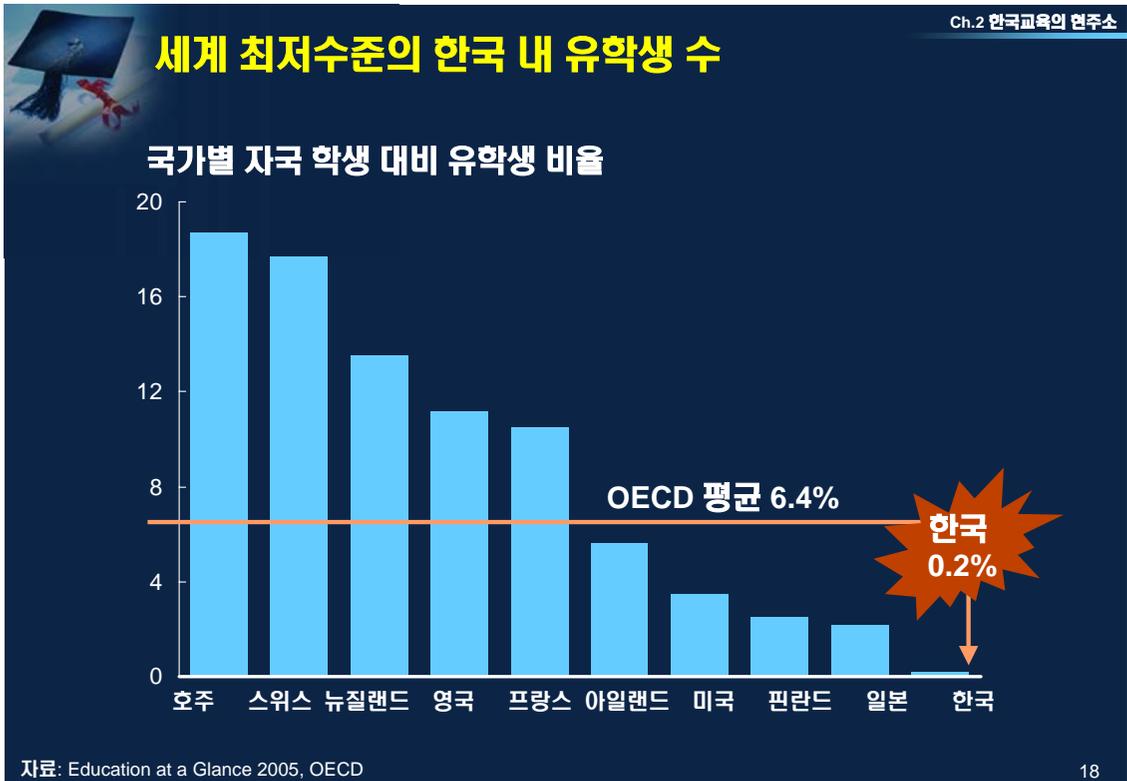
만**15세** 학생을 대상으로 한 **PISA**, 즉 학업성취도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은 종합 세계 **2위**로 나타날 정도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교육이 그렇게 훌륭한 것이라면, 한국을 떠나가는 '교육 엑소더스' 행렬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대학 이상에 재학중인 해외유학생은 **2001년 14만 5천명 (149,333)**에서 **2004년 19만 명(187,683)**에 육박했습니다.

초,중,고등학생들의 조기유학은 공식 집계로만 보더라도 지난 **2000년부터 3년** 사이에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반면 한국에 유학 오는 학생들은 자국 학생 **100명당 0.2명**에 불과, **OECD 국가 평균 6.4명**과는 비교조차 민망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국립 서울대의 경우 **2만** 여명의 학부 등록생 중 순수 외국인 유학생은 **200명** 남짓, 평균 **1.0**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2005년 4월 1일 기준, 서울대 등록생 = 총 31,062명 (학부= 20,422명, 석-박사 과정 = 10,640명)**

순수 외국 유학생 = 총 684명 (학부=203명, 석-박사 과정=481명)

재외동포= 총302명 (학부=288명, 석-박사과정 =1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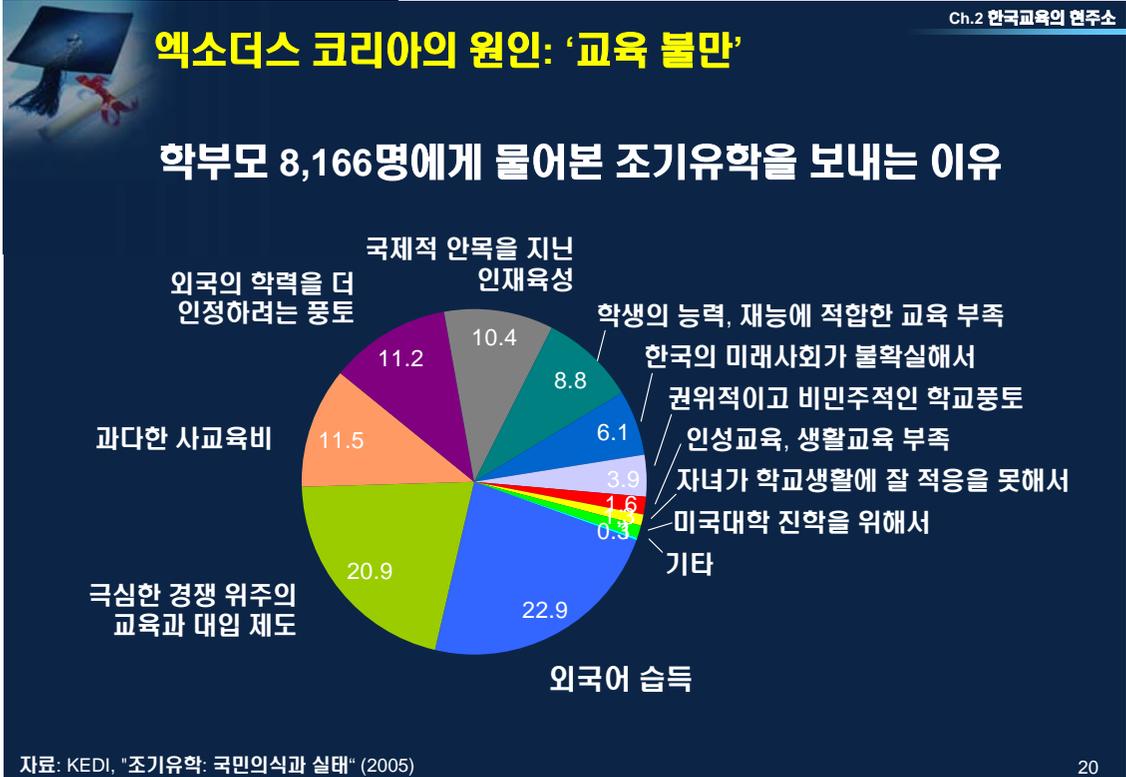


그 결과 유학수지 적자는 2001년 10억 7000만 달러에서 2004년 현재 24억 8700만 달러로 세 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분까지 고려하면 적자규모는 더욱 크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인데

무역으로 100원을 벌면 유학과 해외 여행에 40원 가까이 쓰는 실정입니다.

교육에 관한 한 한국은 마이너스 국가, 엑소더스 국가로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엑소더스가 벌어지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교육불만' 때문입니다.

입시만능의 교육, 과다한 사교육비, 외국학력이 더 인정을 받는 풍토, 학생의 재능과 인성에 맞는 교육의 부족, 불확실한 미래...

OECD가 한국의 교육이 이뤄낸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정작 한국인은 수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10가지 교육불만

- ① 교육불만 1. 올라갈 수록 경쟁력이 떨어진다
- ② 교육불만 2. 개인 호주머니에 너무 의존한다
- ③ 교육불만 3. 학생은 학교에 소속감이 없다
- ④ 교육불만 4. 실력이 아니라 서열과 신분을 만든다
- ⑤ 교육불만 5. 모두가 봉어빵, 수요자의 선택은 없다
- ⑥ 교육불만 6. 학력 인플레이, 20년 공부해 20년 일한다
- ⑦ 교육불만 7. 졸업하면 끝, 더 이상 학습이란 없다.
- ⑧ 교육불만 8. 변화를 읽지 못한다
- ⑨ 교육불만 9.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다
- ⑩ 교육불만 10.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

21

그렇다면 한국인이 느끼는 ‘교육불만’은 근거 없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불만의 근거를 10가지 유형별로 짚어 보겠습니다.



10가지 교육불만

- ① 교육불만 1. 올라갈 수록 경쟁력이 떨어진다
- ② 교육불만 2. 개인 호주머니에 너무 의존한다
- ③ 교육불만 3. 학생은 학교에 소속감이 없다
- ④ 교육불만 4. 실력이 아니라 서열과 신분을 만든다
- ⑤ 교육불만 5. 모두가 봉어빵, 수요자의 선택은 없다
- ⑥ 교육불만 6. 학력 인플레이, 20년 공부해 20년 일한다
- ⑦ 교육불만 7. 졸업하면 끝, 더 이상 학습이란 없다.
- ⑧ 교육불만 8. 변화를 읽지 못한다
- ⑨ 교육불만 9.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다
- ⑩ 교육불만 10.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

교육불만 1. 올라갈 수록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15세까지는 1등, 대학에 가면 꼴등?!

15세의 학업성취도는 세계 일류이지만...



종합성적 2위

- 문제해결능력 1위
- 읽기능력 2위
- 수학능력 3위
- 과학능력 4위

➔

대학 교육이 경쟁 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도는...



**52위
(60개국 중)**

자료: PISA 2003, IMD 2005 23

OECD가 44개 국가 만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즉, PISA에서 한국의 종합성적은 핀란드에 이어 세계 2위 입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성과는 대학으로 가면 급전직하 합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즉 **IMD** 가 내린 한국 대학의 랭킹은 **60개국 중 52위** 입니다. 대학이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정도는 꼴찌 수준입니다.

정상에서 바닥으로 , 올라갈 수록 추락하는 한국 교육의 경쟁력...

OECD 관계자는 이를 두고 ‘국제적인 미스터리’ 라고 부릅니다.

Ch.2 한국교육의 현주소

100대 기업은 있어도, 100대 대학은 없다

세계 100대 기업 속의 한국 기업 (Fortune 발표)

삼성전자	39 위
현대자동차	92 위

세계 100대 대학 속의 한국 대학 (The Times 발표)

없음
※서울대 119위, KAIST 160위, 포항공대 163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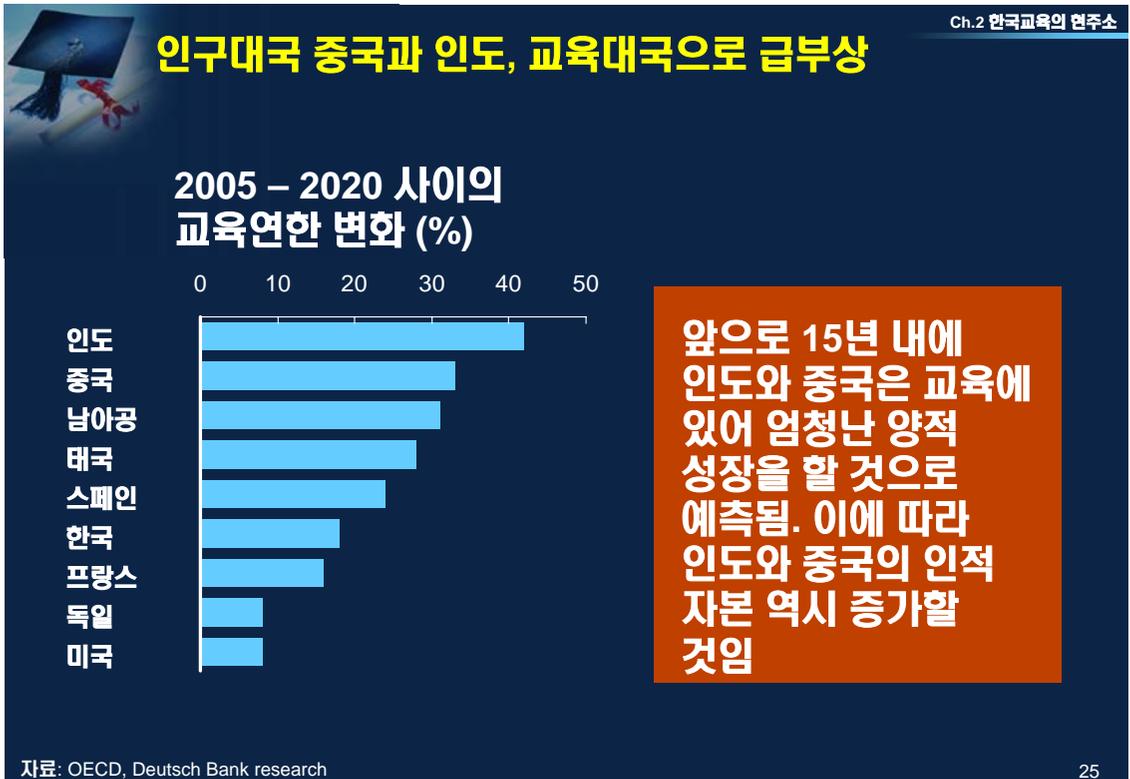
세계 100대 대학 속의 한국 대학 (상해 교통대학 발표)

없음
※서울대 101~152위 권

자료: Fortune(2005), The Times, Jiao tong university(2005) 24

25세에서 34세까지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세계 **3위**, 대학 진학률은 세계 **1위**에 달할 정도로 양적으론 세계 최고입니다.

하지만 세계 **100대** 기업은 있어도 세계 **100대** 대학은 없는 것이 우리 고등교육의 자화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인도가 교육대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위협에 놓인 한국과 달리 인구 보너스를 만끽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는 앞으로 **15년** 동안 교육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도이체방크 연구소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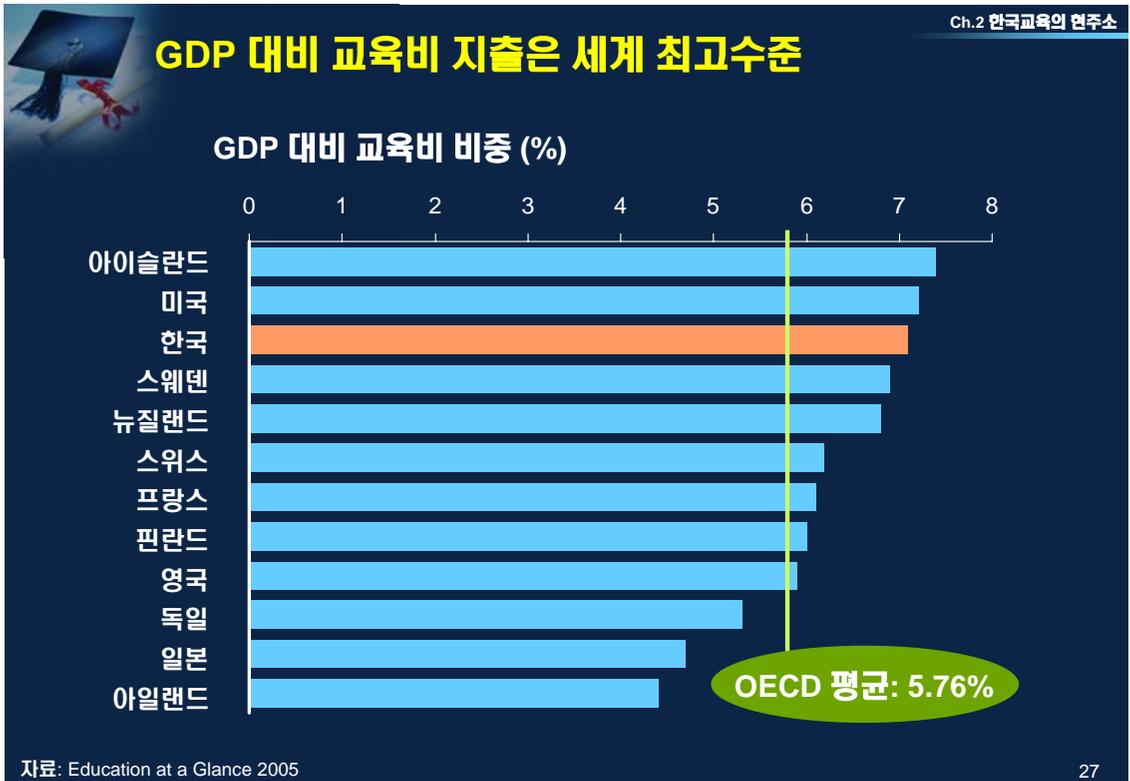
우리가 과거에 그랬듯이 말입니다.



10가지 교육불만

- ① 교육불만 1. 올라갈 수록 경쟁력이 떨어진다
- ② 교육불만 2. 개인 호주머니에 너무 의존한다
- ③ 교육불만 3. 학생은 학교에 소속감이 없다
- ④ 교육불만 4. 실력이 아니라 서열과 신분을 만든다
- ⑤ 교육불만 5. 모두가 봉어빵, 수요자의 선택은 없다
- ⑥ 교육불만 6. 학력 인플레이, 20년 공부해 20년 일한다
- ⑦ 교육불만 7. 졸업하면 끝, 더 이상 학습이란 없다.
- ⑧ 교육불만 8. 변화를 읽지 못한다
- ⑨ 교육불만 9.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다
- ⑩ 교육불만 10.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

교육불만 2. 개인 호주머니에 너무 의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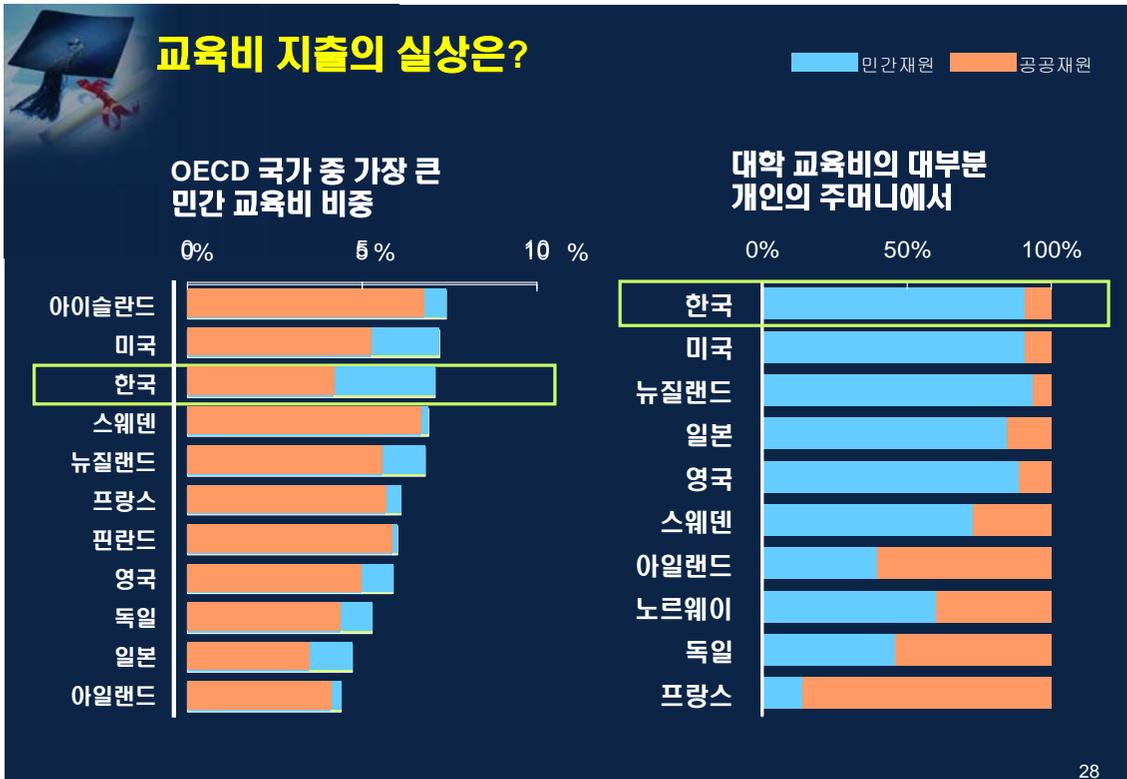


한국의 **GDP 대비 교육비 지출 비중은 7.1%**.

아이슬란드,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입니다.

OECD 평균은 5.76% 입니다.

이 자체로만 보면 한국은 미래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초우량 국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공교육비의 절반 가까운 **41%**가 개인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점에 있습니다.

특히 대학 교육의 경우 한국은 **OECD** 국가 중 교육비에서 차지하는 민간 부담 비중이 **84%**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13조원으로 추정되는 사교육비까지 포함하면 한국인의 교육비 부담은 다른 나라와 비교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나라가 할 일을 개인이 도맡는 한국.

이쯤 되면 교육불만의 차원을 넘어 ‘교육고통’이 되고 맙니다.

제대로 교육시킬 자신이 없어 아이 낳기를 꺼린다는 얘기. 결코 엄살이 아닙니다.



10가지 교육불만

- ① 교육불만 1. 올라갈 수록 경쟁력이 떨어진다
- ② 교육불만 2. 개인 호주머니에 너무 의존한다
- ③ **교육불만 3. 학생은 학교에 소속감이 없다**
- ④ 교육불만 4. 실력이 아니라 서열과 신분을 만든다
- ⑤ 교육불만 5. 모두가 봉어빵, 수요자의 선택은 없다
- ⑥ 교육불만 6. 학력 인플레이, 20년 공부해 20년 일한다
- ⑦ 교육불만 7. 졸업하면 끝, 더 이상 학습이란 없다.
- ⑧ 교육불만 8. 변화를 읽지 못한다
- ⑨ 교육불만 9.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다
- ⑩ 교육불만 10.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

교육불만 3. 학교가 싫습니다.



학교 소속감은?

Ch.2 한국교육의 현주소

PISA 2003의 학업성취도

문제해결력	1위
읽기능력	2위
수학적 능력	3위
과학적 능력	4위

⇄

반면...PISA 2003 결과

학습동기	38위
학교에 대한 태도	38위
학교소속감	35위
수학 흥미도	31위
교사	38위
교사의 헌신도	35위

자료: PISA 2003, OECD 30

성적은 최상위, 소속감은 최하위

앞서 말씀 드렸듯이 만 15세 학생들의 학업능력은 세계 1, 2위를 다룹니다. 그러나 같은 조사에서 나타난 우리 학생들의 학습 동기는 44개 국가 중 38위, 학교소속감은 35위, 교사 헌신도는 35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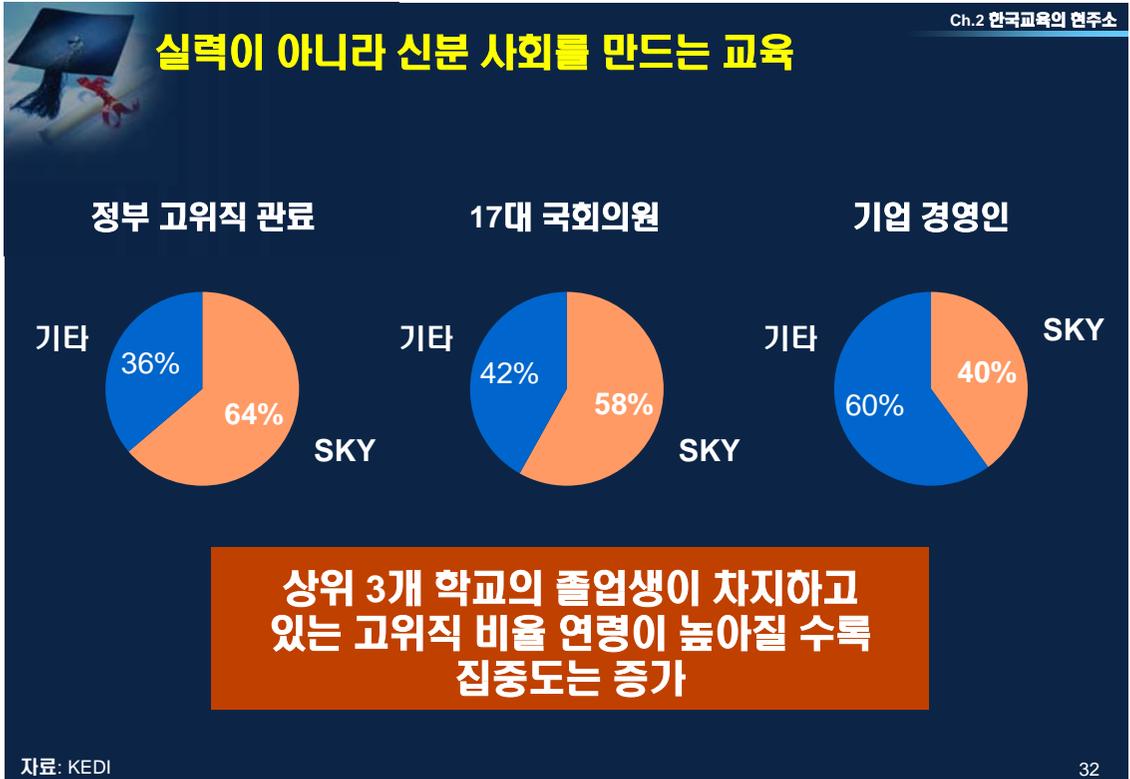
성적 좋은 한국 청소년, 알고 보면 싫어도 억지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10가지 교육불만

- ① 교육불만 1. 올라갈 수록 경쟁력이 떨어진다
- ② 교육불만 2. 개인 호주머니에 너무 의존한다
- ③ 교육불만 3. 학생은 학교에 소속감이 없다
- ④ **교육불만 4. 실력이 아니라 서열과 신분을 만든다**
- ⑤ 교육불만 5. 모두가 붕어빵, 수요자의 선택은 없다
- ⑥ 교육불만 6. 학력 인플레이, 20년 공부해 20년 일한다
- ⑦ 교육불만 7. 졸업하면 끝, 더 이상 학습이란 없다.
- ⑧ 교육불만 8. 변화를 읽지 못한다
- ⑨ 교육불만 9.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다
- ⑩ 교육불만 10.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

교육불만 4. 실력이 아니라 학벌이 신분을 만듭니다.



한국에는 **350**여 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SKY**로 불리는 **3**개 대학 졸업생이 각계 고위직의 절반 안팎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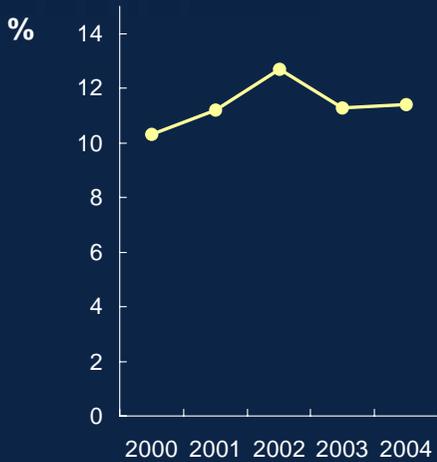
그러나 정작 대학과 대학생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 선진국엔 있지만 우리에게겐 없습니다.

실력이 아니라 학벌이 신분과 서열을 만든다는 비판, 충분히 근거가 있습니다.



지역이 신분이 되는 사회?

서울 내 강남지역 입학생 추이



자료: 서울대학교 입학관리본부 (2005)

서울지역 내
강남 8학군의
서울대학교 입학률



지속적으로
10% 이상 유지

33

OECD 국가 중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특정 지역이 특정 대학에 집중 입학하는 경향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소득 **500만원** 이상의 강남 가구의 총 사교육비는 평균 **172.3만원**으로 나타나 비강남의 **3배**, 지방 광역도시의 **5.5배**라는

조사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모 사립대의 경우 선발의 중요 기준은 소득과 지역이란 말까지 나옵니다.

부모의 소득 수준이, 학생의 출신 지역이 입학의 주된 변수가 된다면

사회는 물론 해당 대학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 **OECD** 국가들의 공통된 경험입니다.



10가지 교육불만

- ① 교육불만 1. 올라갈 수록 경쟁력이 떨어진다
- ② 교육불만 2. 개인 호주머니에 너무 의존한다
- ③ 교육불만 3. 학생은 학교에 소속감이 없다
- ④ 교육불만 4. 실력이 아니라 서열과 신분을 만든다
- ⑤ **교육불만 5. 모두가 붕어빵, 수요자의 선택은 없다**
- ⑥ 교육불만 6. 학력 인플레이, 20년 공부해 20년 일한다
- ⑦ 교육불만 7. 졸업하면 끝, 더 이상 학습이란 없다.
- ⑧ 교육불만 8. 변화를 읽지 못한다
- ⑨ 교육불만 9.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다
- ⑩ 교육불만 10.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

교육불만 5. 모두가 붕어빵, 특성이 없습니다.



모두 똑같은 교육, 외면하는 대학생

- 대부분의 대학이 유사 학과 및 교과과정 운영
 - 학교당 평균 학과 수 90년 37.5개에서 04년 56.5개로 급증
- 대부분의 대학이 연구중심대학 지향
 - 국내 4년제 대학 중 70%가 박사학위 수여
 - 이공계의 경우 석박사 실업률은 15%를 넘음



대학 사이의 차별화 부족

자료: 교육통계연보, KEDI (2004)

35

최근 **10**년간 수많은 대학이 생겼습니다. 입학정원도 대학별로 **20~40%**가 늘었습니다.

그러나 내면을 보십시오. 학교 당 평균 학과 수는 **90년 37개**에서 **2004년 56개**가 넘습니다. **200개 4년** 제 대학 중 박사학위를 주는 대학은 **70%**에 달합니다. 이공계 석 박사 실업률 **17%**에 가깝습니다.

무조건 따라하기식, 무차별 확장이 빚어낸 소극입니다.

그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신입생 충원률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대학의 대학생, 당연히 기업도 외면합니다.



10가지 교육불만

- ① 교육불만 1. 올라갈 수록 경쟁력이 떨어진다
- ② 교육불만 2. 개인 호주머니에 너무 의존한다
- ③ 교육불만 3. 학생은 학교에 소속감이 없다
- ④ 교육불만 4. 실력이 아니라 서열과 신분을 만든다
- ⑤ 교육불만 5. 모두가 봉어빵, 수요자의 선택은 없다
- ⑥ 교육불만 6. 학력 인플레, 20년 공부해 20년 일한다
- ⑦ 교육불만 7. 졸업하면 끝, 더 이상 학습이란 없다.
- ⑧ 교육불만 8. 변화를 읽지 못한다
- ⑨ 교육불만 9.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다
- ⑩ 교육불만 10.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

교육불만 6. 학력 인플레, 20년 공부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으로 구성된

지금의 6-3-3-4 학제는 아이들의 성장추세나 변화하는 노동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50년이 넘도록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80%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요즘. 대부분 16년을 학교에서 보내는 것도 짧지 않은데

전공변경, 어학연수, 취업교육, 군복무등으로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는 평균 28.8세로 늘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평균 퇴사시기는 50대 초반으로 앞당겨지고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년 공부해 20년 일하고 30년 놀게 된다'는 말, 그다지 과장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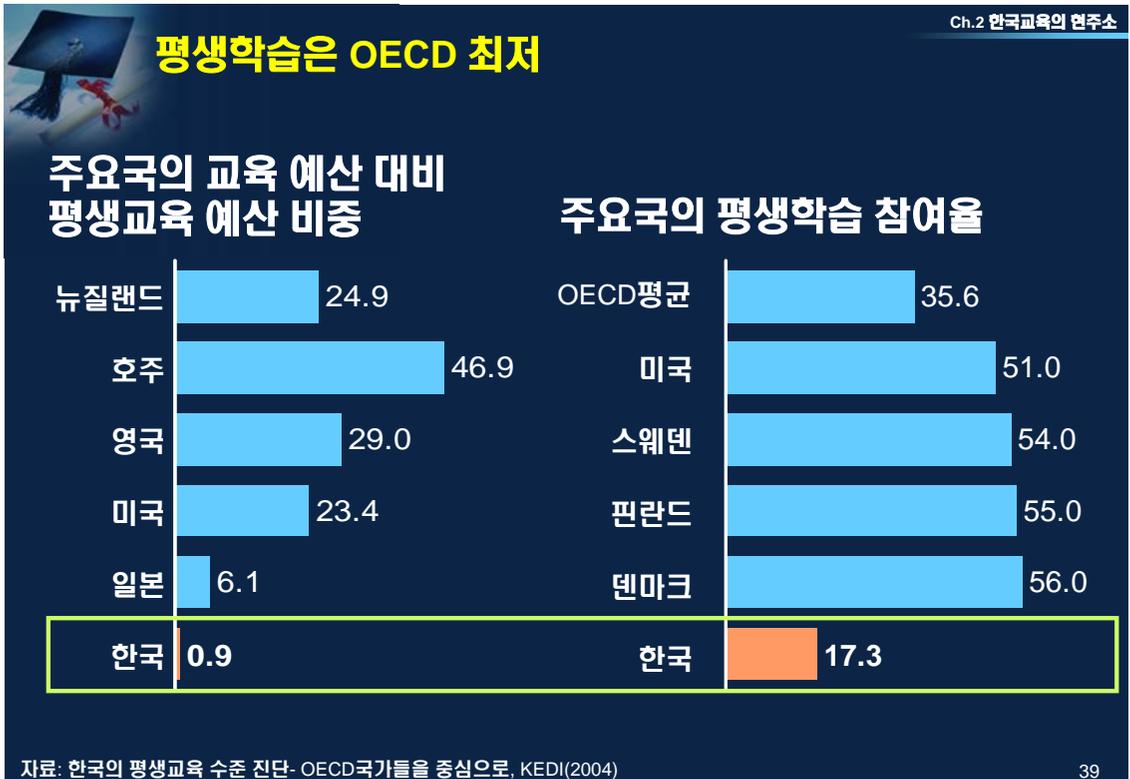
'학력과잉' 풍조 속에서 대졸 출신 미취업자의 사회적 비용은 20조원이 넘는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0가지 교육불만

- ① 교육불만 1. 올라갈 수록 경쟁력이 떨어진다
- ② 교육불만 2. 개인 호주머니에 너무 의존한다
- ③ 교육불만 3. 학생은 학교에 소속감이 없다
- ④ 교육불만 4. 실력이 아니라 서열과 신분을 만든다
- ⑤ 교육불만 5. 모두가 봉어빵, 수요자의 선택은 없다
- ⑥ 교육불만 6. 학력 인플레이, 20년 공부해 20년 일한다
- ⑦ **교육불만 7. 졸업하면 끝, 더 이상 학습이란 없다.**
- ⑧ 교육불만 8. 변화를 읽지 못한다
- ⑨ 교육불만 9.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다
- ⑩ 교육불만 10.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

교육불만 7. 졸업하면 끝, 더 이상 배우는 게 없습니다.



교육예산 중 평생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의 경우 **0.8%**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30분의 1**에도 못 미치며 일본에 비교해도 **8분의 1** 수준입니다.

평생학습 참여율 역시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학교는 누구보다도 오래, 열심히 다니지만 졸업만 하면 끝인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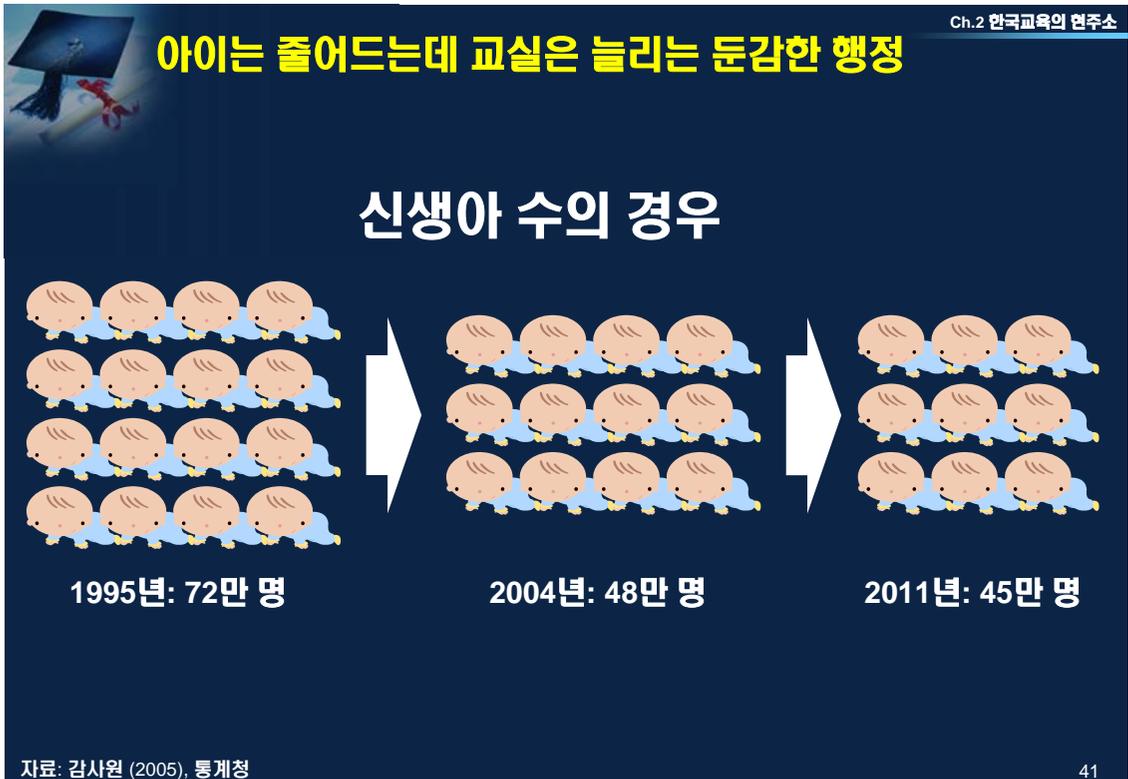
한 번 퇴사하면 그래서 끝이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10가지 교육불만

- ① 교육불만 1. 올라갈 수록 경쟁력이 떨어진다
- ② 교육불만 2. 개인 호주머니에 너무 의존한다
- ③ 교육불만 3. 학생은 학교에 소속감이 없다
- ④ 교육불만 4. 실력이 아니라 서열과 신분을 만든다
- ⑤ 교육불만 5. 모두가 봉어빵, 수요자의 선택은 없다
- ⑥ 교육불만 6. 학력 인플레이, 20년 공부해 20년 일한다
- ⑦ 교육불만 7. 졸업하면 끝, 더 이상 학습이란 없다.
- ⑧ **교육불만 8. 변화를 읽지 못한다**
- ⑨ 교육불만 9.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다
- ⑩ 교육불만 10.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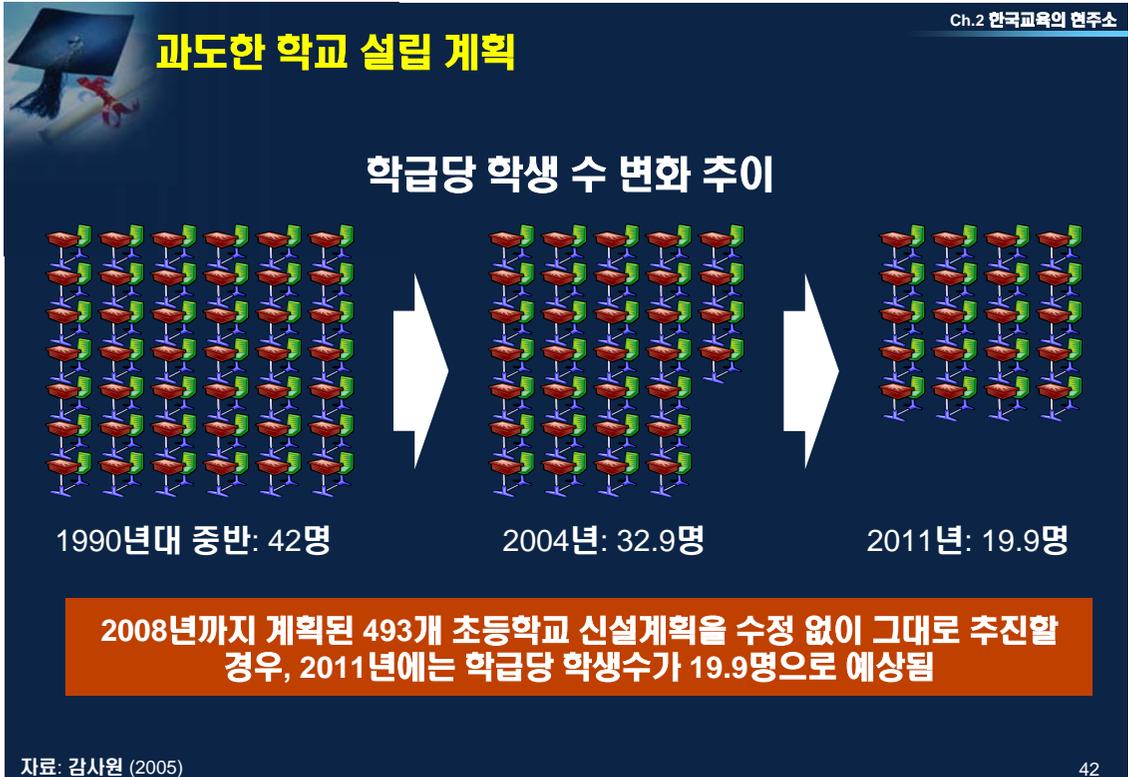
교육불만 8. 변화에 너무 둔감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입니다.

이에 따라 신생아 수는 **1995년 72만 명**에서 **2004년 48만 명**으로 급감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초등학교 신설정책은 그대로 추진됐습니다. 계획대로 교실을 늘린다면 현재 초등학교 학급 당 **32.9명**의 학생수가 **2011년**으로 가면 **20명**이 채 안됩니다.

과밀학급이 아니라 오히려 교실공동화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실제로 경기도 용인시 모 초등학교에서는 **153억**원을 투입, **36개** 학급을 지어놓고도 **8명**만 등교하는 촌극이 벌어졌고 결국 이 학교는 폐교의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무작정 교실을 늘릴 것이 아니라 교사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하라는 권고가 정부 내에서도 나온 배경입니다.



10가지 교육불만

- ① 교육불만 1. 올라갈 수록 경쟁력이 떨어진다
- ② 교육불만 2. 개인 호주머니에 너무 의존한다
- ③ 교육불만 3. 학생은 학교에 소속감이 없다
- ④ 교육불만 4. 실력이 아니라 서열과 신분을 만든다
- ⑤ 교육불만 5. 모두가 봉어빵, 수요자의 선택은 없다
- ⑥ 교육불만 6. 학력 인플레이, 20년 공부해 20년 일한다
- ⑦ 교육불만 7. 졸업하면 끝, 더 이상 학습이란 없다.
- ⑧ 교육불만 8. 변화를 읽지 못한다
- ⑨ **교육불만 9.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다**
- ⑩ 교육불만 10.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

교육불만 9. 변덕행정,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4년과 200년의 차이



한국의 대학 입학 시스템

- 1945년 정부 수립 이후 60년 동안 대입정책은 13번 변화
- 크게는 대학별 단독시험, 예비고사, 학력고사, 수능으로의 변화를 거치면서 변화
- 연합고사, 내신, 본고사, 면접, 논술, 학생부, 등등의 구체적인 요소들은 끊임없는 논쟁 속에 변동을 거듭하고 있음



프랑스의 대학 입학 시스템

- Baccalaureat: 1808년 3월 17일 나폴레옹 시대에 법령으로 제정
- 프랑스의 입시 제도에서 대학 입학자격시험의 역할
- 2004년 말, 시험과목을 줄이고 내신을 20% 도입하는 바칼로레아 개혁안 추진했으나 실패
 - 프랑스 고등학생들은 교육의 후퇴라며 16만 5천명이 거리 시위로 반발
 - 프랑스 교육부는 내신 도입을 철회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3월 말 통과

44

교육은 백년 대계라 했습니다. 나라의 미래가 달린 일이자 학생과 학부모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교육은 백년대계가 아니라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수술대에 오르는 정권대계였습니다.

입시제도만 해도 지난 50년간 무려 13번이 바뀌었습니다. 평균 4년이 되기도 전에 입시제도가 바뀐다면 학생과 학부모로서는 어떤 건물이 들어설지도 모른 채 공사현장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808년 나폴레옹 시대에 법령으로 제정된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대입제도는 2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틀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총장도, 장관도 빨리 빨리



하버드 대학교 총장
평균 재임기간
→ 21년



서울대학교 총장 평균
재임기간
→ 2.6년

자료: McKinsey, SNU

45

한국교육의 변덕증상은 교육부 장관과 대학총장의 ‘단명’현상에서도 쉽게 발견됩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역대장관의 임기는 평균 1.2년. 임기 절반을 막 넘긴 이 정부에서도 무려 4명째 교육부총리가 등장했습니다.

임기적인 대학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버드 대학 총장의 평균 재임기간은 21년 이지만 서울대학교 총장은 고작 2.6년입니다.



10가지 교육불만

- ① 교육불만 1. 올라갈 수록 경쟁력이 떨어진다
- ② 교육불만 2. 개인 호주머니에 너무 의존한다
- ③ 교육불만 3. 학생은 학교에 소속감이 없다
- ④ 교육불만 4. 실력이 아니라 서열과 신분을 만든다
- ⑤ 교육불만 5. 모두가 봉어빵, 수요자의 선택은 없다
- ⑥ 교육불만 6. 학력 인플레이, 20년 공부해 20년 일한다
- ⑦ 교육불만 7. 졸업하면 끝, 더 이상 학습이란 없다.
- ⑧ 교육불만 8. 변화를 읽지 못한다
- ⑨ 교육불만 9.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다
- ⑩ 교육불만 10.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

교육불만 열 번째, 누가 교육 주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육 현안이 발생할 때 마다 한국은 마치 전쟁을 치르듯 합니다.

곳곳에서 싸움이 나고 목소리가 큰 쪽이 이기지만 정작 학생은 소외되고 일자리를 만드는 이들의 발언권도 찾기 어렵습니다.

과연 우리의 교육불만을 해소하고 미래를 설계하고 비전을 실천해 나갈 주체는 누구입니까?



목차

Ch.1	왜 교육인가? - 한국을 흔드는 3가지 충격
Ch.2	한국 교육의 현주소 : 엑소더스 코리아 ▪ 10대 교육불만
Ch.3	교육의 6가지 미래
Ch.4	한국의 선택, 동방 학습지국 ▪ 10대 제언

48

답에 앞서 **OECD**가 마련한 미래 학교의 시나리오를 영상물과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http://future.sbs.co.kr>참조)



학교가 바뀐다? 6개의 길

Ch.3 교육의 6가지 미래

정보통신기술 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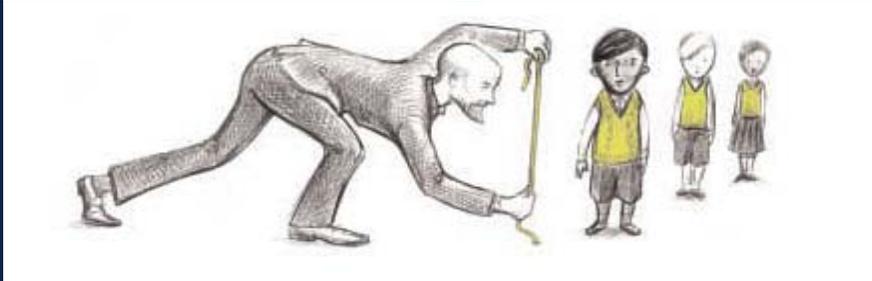
학교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시나리오란 현재 일어나고 있는 흐름을 폭 넓은 맥락에서 이해, 있을 법한 미래로 반영하기 위한 이야기 또는 서술적인 그림
 시나리오는 미래에 대한 투시력을 높일 뿐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미래를 만들어 가도록 도와줌

자료: Schooling for tomorrow, OECD
49

OECD는 지식기반경제의 심화와 정보통신기술 발달, 인구변동 및 가족관계, 노동시장 변화 등으로 학교 역시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다음과 같은 6가지의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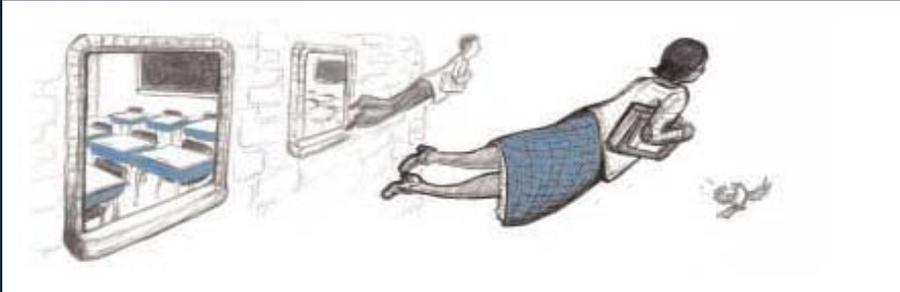
시나리오 1: 현상유지 – 관료적 학교체제의 지속



50

이 시나리오는 관료주의가 앞으로도 여전히 주도권을 쥐고 변화를 거부함으로써 획일적인 학교체제는 별로 바뀌지 않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교육의 공공성은 굳건히 지키는 반면 효율성을 앞세운 행정만능주의로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못한 결과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외면 받을 가능성이 큼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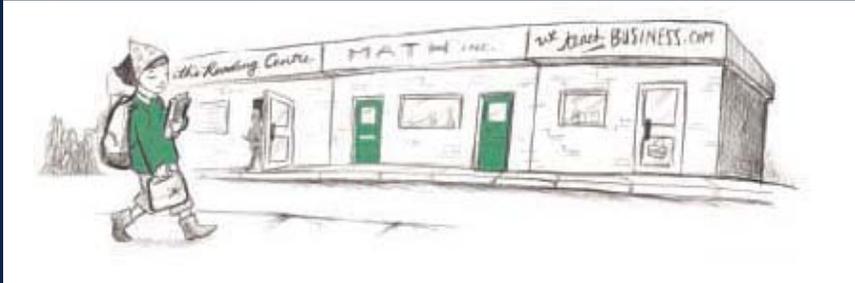
시나리오 2: 학교붕괴 - 교사들의 엑소더스



51

교사들의 고령화, 사기저하, 새로운 직업의 유혹에 따른 이직 등으로 교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 학교를 꾸려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 **OECD**의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국은 실업 난 속에서 교사가 인기 직종으로 떠올라 오히려 공급과잉의 우려마저 있습니다.

시나리오 3: 수요자와 시장이 주도하는 학교



52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학교가 다양하게 바뀌어 간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소비자, 즉 학생과 학부모는 자유롭게 자신의 취향과 능력에 맞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으며 획일적 규제가 아니라 평가와 인증이 그 선택을 돕게 됩니다. 교육에도 기업가 정신이 들어와 새로운 교육산업을 이끌어 갑니다. 많은 혁신이 이뤄지지만 불평등과 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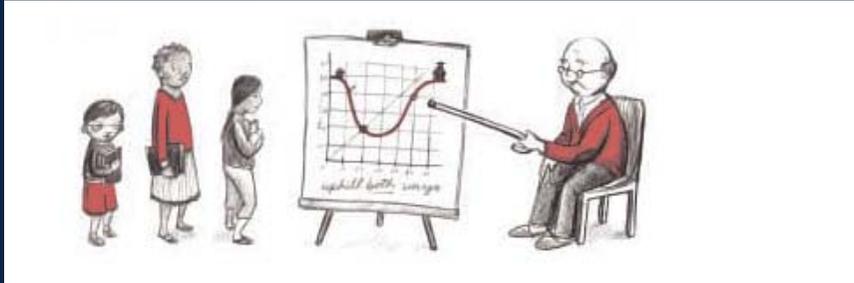
시나리오 4: 네트워크 사회로 흡수되는 학교



53

OECD의 네 번째 시나리오는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네티즌의 확산으로 학교가 다층 학습 네트워크로 흡수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학습은 가정에서 이뤄지는 이른바 ‘홈스쿨링’이 일반화되고 교육은 학교를 떠나 ‘개인화’ 됩니다. 학교는 다른 기관과 큰 차이를 갖지 않게 되며 교사와 제자의 구분도 불분명해지는 ‘크로스 보더’의 미래입니다.

시나리오 5: 사회통합센터로 변화하는 학교



54

학교는 지식전수기관이라는 고유 역할보다는 지역공동체의 가치와 규범을 지키는 사회센터로 변화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보다는 지역 주민들에게 시민의식을 키우고 서로를 돕도록 사회통합의 중심역할을 하는 쪽으로 학교가 변화하게 된다는 예측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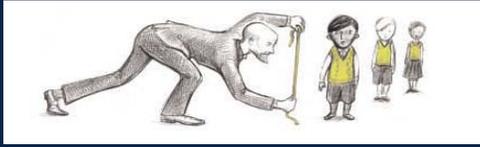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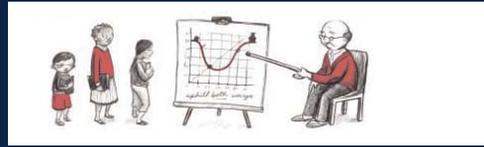
시나리오 6. 학습조직으로 재탄생 하는 학교



55

실험과 다양성 그리고 혁신의 문화 속에서 학교가 강력한 학습조직으로 재창조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지식경영이 전면에 대두되면서 학교는 고등교육조직과 연계됩니다. 새로운 교육학과 학습과학이 대두되면서 교육의 지평이 쌍방향 평생학습으로 확대됩니다. 교사는 물론 각종 당사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시나리오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미래는 만들 수 있다



KEDI의 델파이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교육계 리더들은 향후 20년 정도 이후 현 체제, 즉 관료제와 시장 모델의 유지를 전망하면서도 그것이 가지는 한계를 비판하고 있음. 반면 학교가 사회 센터로 발전하거나 학습 조직으로의 변화 모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관적임을 알 수 있음

자료: 학교 교육의 미래전망- CERl 의 미래 학교 전망 시나리오에 대한 교육계 리더들의 인식, KEDI (2004)

56

OECD가 이 시나리오를 만든 이유는 미래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교육은 무너질 수도, 바로 설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목차

Ch.1	왜 교육인가? - 한국을 흔드는 3가지 충격
Ch.2	한국 교육의 현주소 : 엑소더스 코리아 ▪ 10대 교육불만
Ch.3	교육의 6가지 미래
Ch.4	한국의 선택, 동방 학습지국 ▪ 10대 제언

57

(발표 : **SBS** 미래부장 서두원)

한국의 마지막 선택, 동방 학습지국의 비전을 말씀드릴
순서입니다.

한국을 떠나게 하는 교육이 아니라 한국을 찾아오게 하는
교육이 동방학습지국의 요체입니다.

Ch.4. 한국의 선택

교육 엑소더스에서 교육 허브, 학습중심국가로



- 목표: 창조적 인재, 책임 있는 시민 육성,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
- 가치관: 다양성
- 재산: 지식
- 화폐: 언어
- 복지: 평생학습
- 정책: 개방과 경쟁
- 전략: 교육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 강점: ICT industry, 인터넷 인프라
- 주체: 새로운 참여와 책임의 가버넌스

58

한국이 동북아에서 가장 좋은 학습환경을 가진 국가로, 창의적 인재와 책임 있는 시민의 산실로 재창조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세계적 통신기업 노키아의 **CEO**가 아들을 한국으로 유학 보내고

한류 붐을 타고 중국을 비롯, 아시아 학생들이 지방대학의 문까지 두드리고 있습니다.

몇몇 교육기업 들은 미국 등 세계 곳곳에 교육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 ① 다양성을 동방학습지국 최고의 덕목으로
- ② 교육은 최선의 복지, 학습복지국가로 가라
- ③ 시대변화에 맞게 학제를 개편하라
- ④ 유비쿼터스 학습 체제 구축
- ⑤ 교육은 21세기의 반도체, 전략산업으로 키워라
- ⑥ 교육 시장을 개방, 영어를 생활화하라
- ⑦ 산학, 지식 창출의 파트너가 되라
- ⑧ 정부, 평가와 정보공개로 거듭나라
- ⑨ 서울대, 자유를 원하면 정부에서 떠나라
- ⑩ 학교, 시민정신 키우는 지역공동체가 되라

이제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실천에 옮겨야 할 10대 과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1 다양성을 동방학습지국 최고의 덕목으로
- 2 교육은 최선의 복지, 학습복지국가로 가라
- 3 시대변화에 맞게 학제를 개편하라
- 4 유비쿼터스 학습 체제 구축
- 5 교육은 21세기의 반도체, 전략산업으로 키워라
- 6 교육 시장을 개방, 영어를 생활화하라
- 7 산학, 지식 창출의 파트너가 되라
- 8 정부, 평가와 정보공개로 거듭나라
- 9 서울대, 자유를 원하면 정부에서 떠나라
- 10 학교, 시민정신 키우는 지역공동체가 되라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 옛날 중국인들은 한국 사람들이 서로 양보하고 싸우지 않으며 풍속이 아름답고 예절이 바르다고 칭송하였습니다. 동방학습지국으로서 한국은 다양성을 최고의 덕목, 최고의 가치로 삼는 나라로 칭송 받아야 합니다.

학생의 선발에서 학교의 선택, 교육 내용에서 인재상에 이르기까지 획일성을 버리고 다양성을 우리의 중심 가치로 선택해야 합니다.



대학, 학생선발의 다양성 지표를 제시하라



- 다양한 출신, 배경, 소질, 관심, 경험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함께 학습하는 환경이 조성될 때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학생들을 입학시킴
- 국제학생 수에 대한 할당제는 존재하지 않음
- 25년 전 UMPR(Undergraduate Minority Recruitment Program)을 출범시켜 다양한 출신의 학생들을 모집
- 현재는 소수인종이 하버드 재학생의 40%를 차지

자료: Harvard College Undergraduate Admissions : Statistics (Class of 2008)

61

우리 사회에 다양성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대학부터 변해야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경우 25년 정부터 ‘다양성 프로그램’을 도입, 출신과 배경, 소질과 경험을 달리하는 학생들을 골고루 뽑고 있습니다. 다양성이야말로 학교와 사회의 역동성을 살리는 길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라는 이 대학은 ‘선발’이 아니라 ‘recruiting’ 즉 곳곳의 인재를 발굴한다는 뜻에서 ‘채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을 정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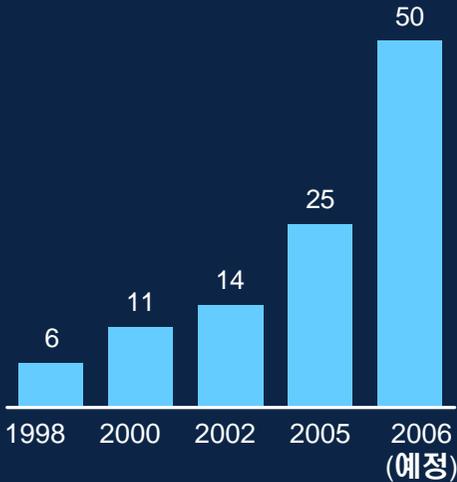
다른 많은 세계 유수의 대학들도 다양성을 선발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대학이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가진 학생, 다양한 지역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겠다고 하며 다양성 지표를 제시한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수요자의 선택에도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인가 특성화 대안학교 증가추이



자료: Article

대안학교

- 90년대 중반 이후 생겨나기 시작
- 현재 전국적으로 100여 곳(인가, 비인가 포함)으로 폭발적 증가
- 교과서에 얽매이는 교육, 입시위주에서 벗어난 다양한 체험교육의 강조

- 인기 있는 대안학교의 경우 입학경쟁률이 5:1 이 넘음
- 도심형 대안학교 및 대안 초등학교, 홈 스쿨링 등 다양한 대안교육 역시 증가하는 추세

같은 맥락에서 동방학습지국에서는 수요자, 즉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도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대학은 물론 의무교육이 종료되는 고등학교에서도 다양한 학교의 설립과 선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대안학교를 비롯,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등 각종 학교의 분출은 보장되고 격려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 교육감의 자립형 사립고 정책 역시 우리는 환영합니다.

세계적인 허브에는 각양각색이 존재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대학은 더욱 차별화, 다양화 되어야 합니다.

연구중심 대학에서 직업기술중심 대학에 이르기까지, 종합대학에서 전문대학, 전국대학에서 지역대학까지 저마다의 색깔과 위치선정이 있어야 동방학습지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개성시대에 서열은 없다, 1등의 개념을 바꿔라

대학 특성화의 우수 사례

	경상대학교	경북대학교	영진전문대학
분야	생명과학 (BT)	정보통신 (IT)	주문식 교육과정
연구성과	최근 10년간 생명과학분야 세계 top 학술지에 논문 300여 편 게재	최근 4년간 국제논문 편수 689편으로 이전 30년간 누적 논문의 2.6배	국가고객 만족도(NCSI)3년 연속 전국 1위
취업률	석사 75% 박사 94%	학부 90% 석사 91% 박사 83%	12년 연속 90% 이상
특성화 결과	“한국의 샌디에고(바이오밸리)” -삼성경제연구소	졸업생 대거 대기업 진출, 국내 전자임계의 주축인력이 경북대 출신	총 37개 업체, 811명의 주문식 교육 협약 체결

64

인재상 역시 다양화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직업종류는 1만 개 남짓한 반면 미국의 직업종류는 3만 개가 넘습니다.

선진국일 수록 다양한 직업, 다양한 인재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지식경제시대의 진정한 인재는 각자의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정답이 없는 개성시대에 당연히 1등도 한명일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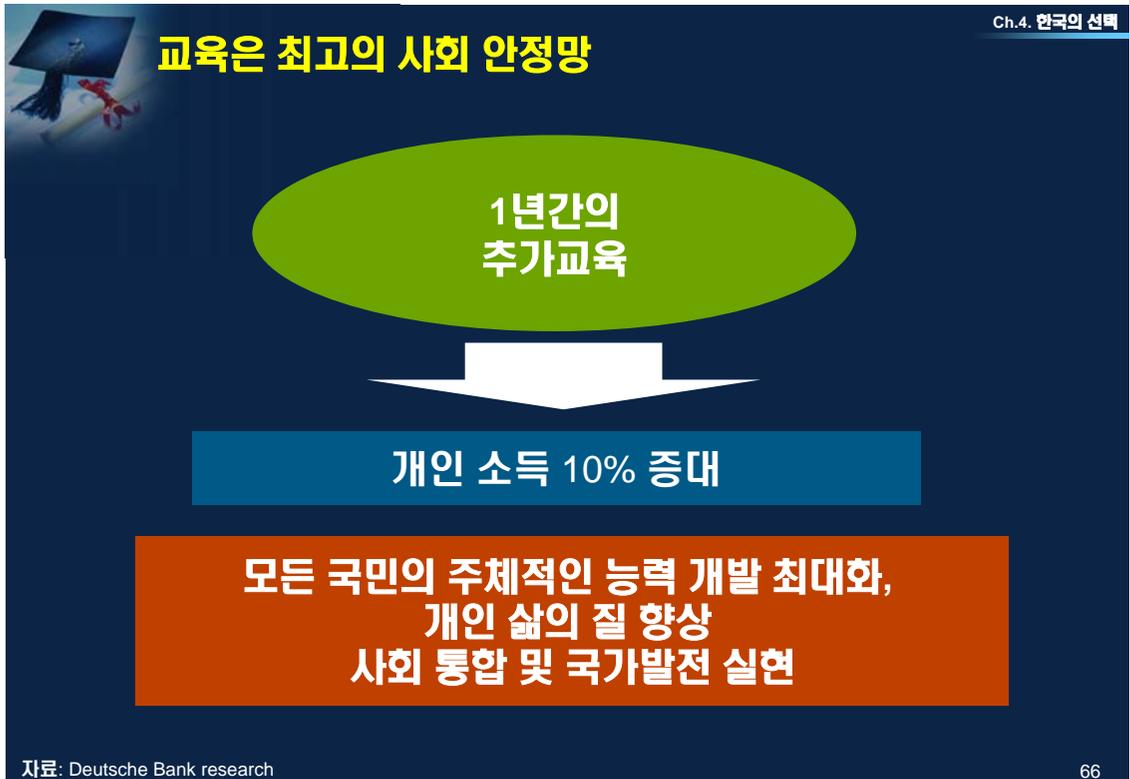
다양한 길, 다양한 성취가 존중 받는 풍토가 더욱 빨리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림에서 보듯 남 다른 길을 선택한 대학과 대학생은 이미 연구와 취업 모두에서 승리자가 되고 있습니다.



- ① 다양성을 동방학습지국 최고의 덕목으로
- ② **교육은 최선의 복지, 학습복지국가로 가라**
- ③ 시대변화에 맞게 학제를 개편하라
- ④ 유비쿼터스 학습 체제 구축
- ⑤ 교육은 21세기의 반도체, 전략산업으로 키워라
- ⑥ 교육 시장을 개방, 영어를 생활화하라
- ⑦ 산학, 지식 창출의 파트너가 되라
- ⑧ 정부, 평가와 정보공개로 거듭나라
- ⑨ 서울대, 자유를 원하면 정부에서 떠나라
- ⑩ 학교, 시민정신 키우는 지역공동체가 되라

제언2. 교육은 최선의 복지, 학습복지국가(**Learnfare State**)로 가야 합니다.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상책이란 말이 있습니다.

교육이야말로 최고의 사회복지, 최고의 사회 안전망이라는 애깁니다.

경제성장의 절반은 인적자본에 따른 것이며 1년간의 추가교육은 소득 **10%** 증가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은 또한 지식격차 극복을 통해 사회통합을 가져오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지식경제시대의 진정한 복지국가(**Welfare State**)는 학습복지국가(**Learnfare State**)인 까닭입니다.

Ch.4. 한국의 선택

평생학습권을 부여하고 예산확충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라

유한킴벌리의 사례

**총 매출의 3%,
일인당 연간 360시간
직원 재교육에 투자**

**기술교육, 직무교육,
교양교육 등 실시**

➔



**생산성 제고
시장 점유율 1위**

67

평생학습을 정착시킨 유한킴벌리는 그런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이 회사는 매출액의 **3%**를 직원교육에 투입, **1인 당 연간 360시간**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도록 학습 카페테리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IMF의 험난한 파고를 뚫고 막강한 경쟁업체를 누른 비결은 사람에게 대한 투자에 있었습니다.

재학생보다 편입생의 비율이 높아지고, **20대보다 30-40대**의 비율이 높아진 방송통신대학 역시 평생학습의 수요와 미래를 보여주는 사례로 손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일 뿐, 한국의 평생학습은 말 그대로 유명무실합니다.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 고령화 추세에 맞춰 유아에서 성인교육에 이르기까지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합니다. 개인학습계좌를 비롯, 평생학습권을 한국인의 최대 기본권으로 만들어 주어야 동방학습지국이 꽃필 수 있습니다. 그러자면 예산의 최우선순위를 여기에 두고 선진국과는 비교조차 안 되는 관련예산부터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을 급선무로 삼고 향후 **10년** 뒤 선진국을 능가할 수준의 예산확충 **10개년** 계획을 지금 당장 수립해야 합니다. 기업도 수혜자의 입장에서 당연히 이에 동참해야 합니다.



- ① 다양성을 동방학습지국 최고의 덕목으로
- ② 교육은 최선의 복지, 학습복지국가로 가라
- ③ **시대변화에 맞게 학제를 개편하라**
- ④ 유비쿼터스 학습 체제 구축
- ⑤ 교육은 21세기의 반도체, 전략산업으로 키워라
- ⑥ 교육 시장을 개방, 영어를 생활화하라
- ⑦ 산학, 지식 창출의 파트너가 되라
- ⑧ 정부, 평가와 정보공개로 거듭나라
- ⑨ 서울대, 자유를 원하면 정부에서 떠나라
- ⑩ 학교, 시민정신 키우는 지역공동체가 되라

제안 3. 평생학습체제의 구축과 아울러 시대변화에 맞게 학제도 개편해야 합니다



시대변화에 맞게 학제를 개편하라

기존의 '6-3-3-4' 학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학제로



69

만 6세에서 시작하는 교육연한 16년의 현행학제는 청소년의 성장발달이나 저출산, 지식정보화 추세에 비춰 볼 때 고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경직된 현재의 학제로는 유아교육에서 성인교육으로 연결되는 평생학습체제와의 통합성, 직업교육 및 진로변경 등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현행 학제를 유아-5-3-4-4 제도 또는 유아-5-3-3-4로 개편할 것을 제안합니다.

유아-5-3-4-4 제도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 만 5세 아이에게 1년간 의무 유아교육을 제공하고 교육기간이 너무 긴 초등학교 교육연한을 1년 단축하는 동시에 고등학교 과정을 4년으로 확대 전반 2년은 기본 교육과정으로 후반 2년은 선택과정으로 운영, 대학과의 연계를 강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유아-5-3-3-4 제도는 아예 학제를 1년 단축, 학생들을 산업사회에 조기진출 시키자는 걸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와 대학을 5년제로 통합하자는 아이디어도 검토의 가치가 있습니다.

청소년과 대학입시에 초점을 둔 현행 학제를 유아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평생학습체제로 통합,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① 다양성을 동방학습지국 최고의 덕목으로
- ② 교육은 최선의 복지, 학습복지국가로 가라
- ③ 시대변화에 맞게 학제를 개편하라
- ④ **유비쿼터스 학습 체제 구축**
- ⑤ 교육은 21세기의 반도체, 전략산업으로 키워라
- ⑥ 교육 시장을 개방, 영어를 생활화하라
- ⑦ 산학, 지식 창출의 파트너가 되라
- ⑧ 정부, 평가와 정보공개로 거듭나라
- ⑨ 서울대, 자유를 원하면 정부에서 떠나라
- ⑩ 학교, 시민정신 키우는 지역공동체가 되라

제언 4: 누구든 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 학습체제를 구축하자

동방학습지국을 뒷받침하는 한국 특유의 힘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 인터넷 망과 각종 정보통신 서비스로 무장한 '디지털 코리아'가 그것입니다. 누구든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유비쿼터스 학습체제' 한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e-러닝. 원격학습 준비도에서 세계 4위를 차지할 만큼 이 분야에서는 앞서가고 있습니다. 올 가을 개최될 APEC 아시아 태평양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의 e-러닝 센터로 지정될 계획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장점을 살려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선택에 따라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학습체제를 조기에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의 지역격차, 소득격차 해소는 물론 사교육비 절감의 지름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일반대학에는 3천억원을 지원하면서 전국 17개 원격교육대학에는 5억원 남짓 지원하는 것은 유비쿼터스 학습체제의 미래에 비춰보면 재고의 여지가 있습니다. 철저한 학사관리와 품질평가, 투명한 경영을 전제로 유비쿼터스 고등교육, 평생교육에의 지원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① 다양성을 동방학습지국 최고의 덕목으로
- ② 교육은 최선의 복지, 학습복지국가로 가라
- ③ 시대변화에 맞게 학제를 개편하라
- ④ 유비쿼터스 학습 체제 구축
- ⑤ **교육은 21세기의 반도체, 전략산업으로 키워라**
- ⑥ 교육 시장을 개방, 영어를 생활화하라
- ⑦ 산학, 지식 창출의 파트너가 되라
- ⑧ 정부, 평가와 정보공개로 거듭나라
- ⑨ 서울대, 자유를 원하면 정부에서 떠나라
- ⑩ 학교, 시민정신 키우는 지역공동체가 되라

제언 5. 교육은 21세기의 반도체, 전략산업으로 키워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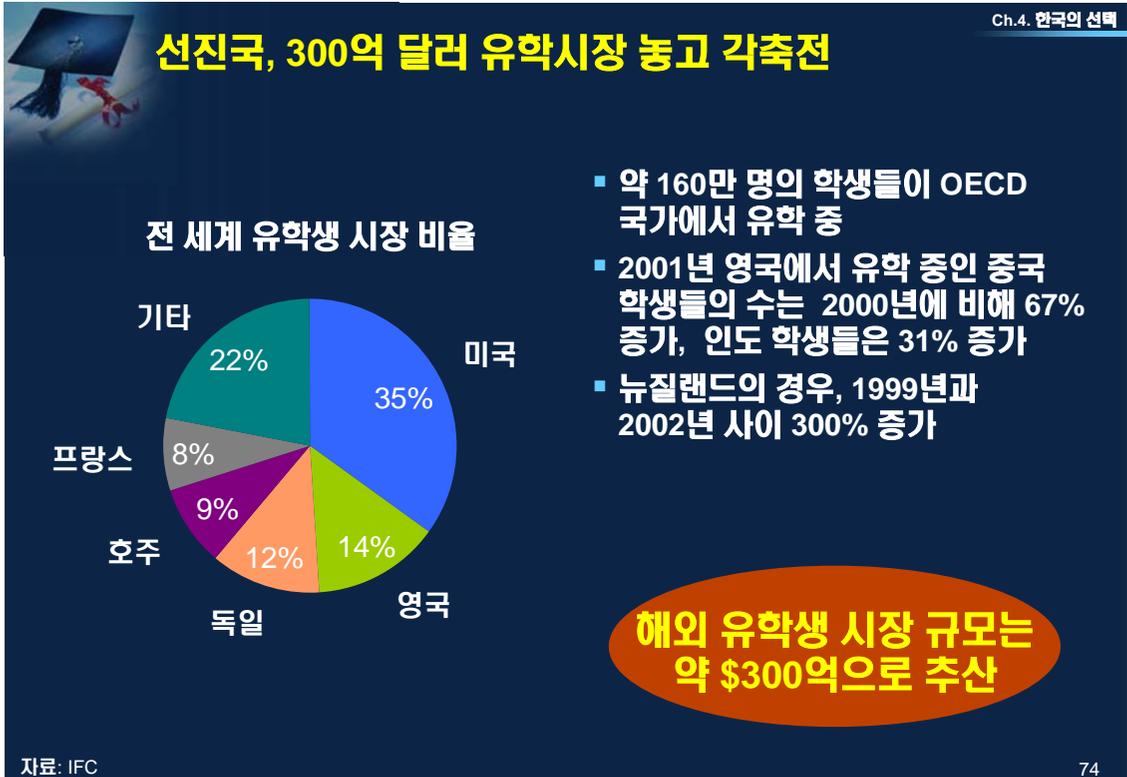
2조 달러가 넘는 세계 교육시장

- 세계 교육시장의 규모는 총 2조 2천억 달러 이상
- 교사는 전 세계 노동력의 5%를 차지
-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는 학생은 전 세계적으로 9,000만 명
 - 전체 18~25세 연령의 20% 이하

자료: Merrill Lynch 2000; OECD 2000/ 01; UNESCO 2000/01; IFC

73

세계은행 산하 기구인 국제금융공사에 따르면 세계교육시장의 규모는 2조2천억 달러를 초월한다고 합니다. 교사는 전 세계 노동력의 5%를 차지합니다. 대학이상의 교육을 받는 학생은 1억 명에 육박합니다. 한 마디로 교육 자체가 엄청난 일자리를 만드는 거대산업이란 얘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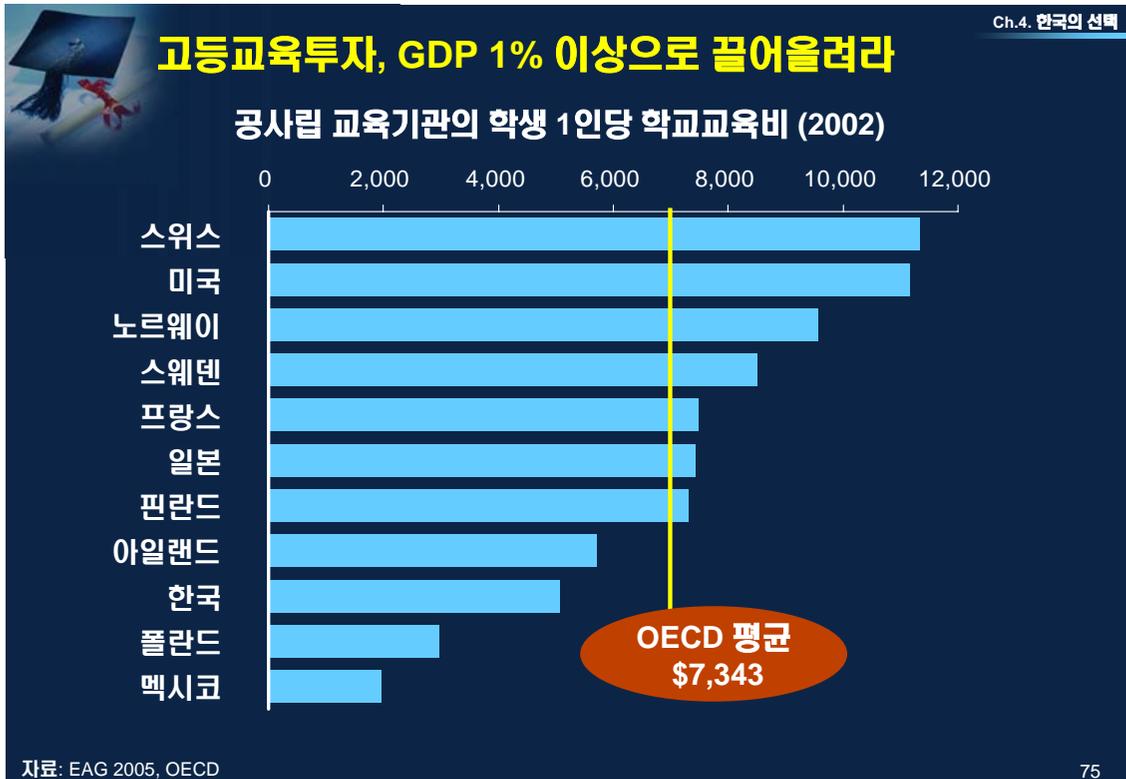


각 국이 외국유학생 유치경쟁에 뛰어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OECD 국가 중 해외 유학생은 **160만** 명이 넘으며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300억** 달러 규모에 달합니다.

이 중 미국으로의 유학생이 **35%** 달하는 **58만** 명이며 영국, 독일, 호주, 프랑스가 추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외국학생유치를 국가목표로 삼아 최근 **3년간 300%** 증가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75

교육을 전략산업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투자비는 절대 액수가 부족합니다.

정부와 민간이 학교교육에 투자하는 총 교육비를 학생 1인당 교육비로 환산, 이를 구매력지수로 바꾸면,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OECD 국가평균(초등 \$5,313, 중등 \$7,002, 고등 \$10,655)에 크게 못 미칩니다. 특히 고등교육은 OECD 평균의 57% 수준에 불과합니다.

현재 GDP의 0.6% 수준을 고등교육투자비를 1% 이상으로 높여 경쟁력 있고 매력 있는 고등교육기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표산업과 연계, 외국학생 10만 명을 유치하라



**1982년 부터 21세기
초까지 10만 명의 유학생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 추진**

➔

**2003년에 10만
외국인 유학생 유치
목표 초과 달성**

이를 위한 일본 대학 개혁의 중점적인 추진 방향

1. 대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력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유학생의 불편에 대한 배려 ▪ 대학 체제의 정비 내실화와 자기 평가의 개선
2. 열린 유학 제도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전형이나 해외에서의 입학시험 실시 ▪ 일본어 시험의 개선과 기초학력 측정 시험 개발 ▪ 유학생에게 대입 자격을 제공하는 준비 교육기관 지정 ▪ 해외와의 대학간 교류 추진
3. 우수한 유학생을 확보하기 위한 내실 있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금 제도의 정비 ▪ 유학생 숙소 확보 및 일본인과의 공동 생활 방식 추진 ▪ 특색 있는 지역화의 추진 ▪ 준비기관의 재적 학생에 대하여 체류 자격 부여

76

교육투자의 확대와 함께 한국의 대표산업과 연계해 외국학생 유치에 총력전을 기울여야 합니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으로 유학길에 오르는 이유도 선진산업과 학문의 융합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세계시장에 손색 없는 정보통신산업을 비롯, 한류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강점을 십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이 나카소네 전 총리시절부터 10만 명 유학생 유치를 목표로 펼친 사업처럼 우리에게도 스터디 코리아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를 보다 공격적으로 추진, 2010년까지 외국학생 10만 명을 유치하도록 정책목표를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① 다양성을 동방학습지국 최고의 덕목으로
- ② 교육은 최선의 복지, 학습복지국가로 가라
- ③ 시대변화에 맞게 학제를 개편하라
- ④ 유비쿼터스 학습 체제 구축
- ⑤ 교육은 21세기의 반도체, 전략산업으로 키워라
- ⑥ **교육 시장을 개방, 영어를 생활화하라**
- ⑦ 산학, 지식 창출의 파트너가 되라
- ⑧ 정부, 평가와 정보공개로 거듭나라
- ⑨ 서울대, 자유를 원하면 정부에서 떠나라
- ⑩ 학교, 시민정신 키우는 지역공동체가 되라

제언 6. 교육 시장을 과감히 개방하고 영어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Ch.4. 한국의 선택

싱가포르의 비전



Global school house 프로젝트
World class university program:

1980년 경제성장에 필요한 해외인재 모집을 위해 위원회 설립
세계 최고수준 10개 대학 유치를 위한 10개년 계획 수립
미국 유명 대학과 협동연구프로그램(Joint Research Program) 등을 병행

**30년간 캠퍼스 부지 무상임차
4년간 연구비 50% 제공 등의 조건**

존스
홉킨스
의대

INSEAD

MIT

Univ. of
Chicago

Etc.

**인구 443만 명 가운데 6만 6천명이 외국 유학생
2015년까지 인구 3%에 달하는 15만 명의 유학생 유치 목표
\$37억의 경제유발 효과 예측**

78

싱가포르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1세기 생존전략으로 세계교육허브를 채택한 싱가포르는 '글로벌 스쿨 하우스(Global School House)'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30년간 캠퍼스 부지 무상임차, 4년간 연구비 50%제공 등의 파격적 조건을 내걸고 존스홉킨스 대학, 인시아드 경영대학원등 세계수준의 대학 유치에 나섰습니다. 리관유 전 총리를 비롯, 범 정부적으로 총력적을 편 결과 싱가포르는 내국인은 물론 인구 443만 명 가운데 6만 6천명이 외국유학생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2015년까지 인구의 3%에 달하는 15만 명의 유학생을 매년 유치, 경제 유발효과만 37억 달러를 거둘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 큰 효과는 다국적 기업들이 인재 확보를 위해 싱가포르로 몰려 온다는 데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일자리 창출과 국부 증대 효과가 발생합니다.

한국도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속의 동방 학습지국이 되기 위해선 교육 문호를 과감히 개방, 세계 일류의 교육기관과 경쟁하고 품질을 높여야 합니다. 세계 일류의 교육과 인재가 몰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외국교육기관 유치가 각종 규제와 인식 부족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 안타깝습니다.

영어 생활화의 단계별 계획을 제시하라



핀란드의 국제화와 영어 강조, 교육 경쟁력

- 핀란드 국민 77%가 영어 구사
- 폴리테크닉 149 과정 중 24 과정을 외국어로 제공
- TV프로그램 절반이 영어이며, 외국 영화를 원어로 방영

520만 인구와 20개 대학 수를 감안하면 한국보다 월등한 대학 경쟁력을 보유
 IMD세계 경쟁력 평가에서 1위 차지 (대학교육 부문 역시 1위)
 지난 10년간 유럽 주요국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 실현
 고품질의 인력 양성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평가를 받음

자료: 주 OECD 한국 대표부

79

교육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또 하나의 요건이 있습니다.
 세계언어로 자리잡은 영어의 생활화입니다.

국가경쟁력 1위를 지키고 있는 핀란드의 성공요인은 국제화된 교육이 손꼽힙니다. 자국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핀란드는 대학 149개 과정 중 24개 과정을 외국어로 제공하고 있으며 TV프로그램의 절반을 영어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외국영화는 원어로 방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결과 핀란드 국민의 77%가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세계의 인력자원경쟁에서 한발 앞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단계적 계획을 세워, 영어를 생활 속으로 뿌리 내려야 합니다.

정부가 먼저 영어문서를 공문서로 허용하는 등 앞서가는 자세를 보이기를 제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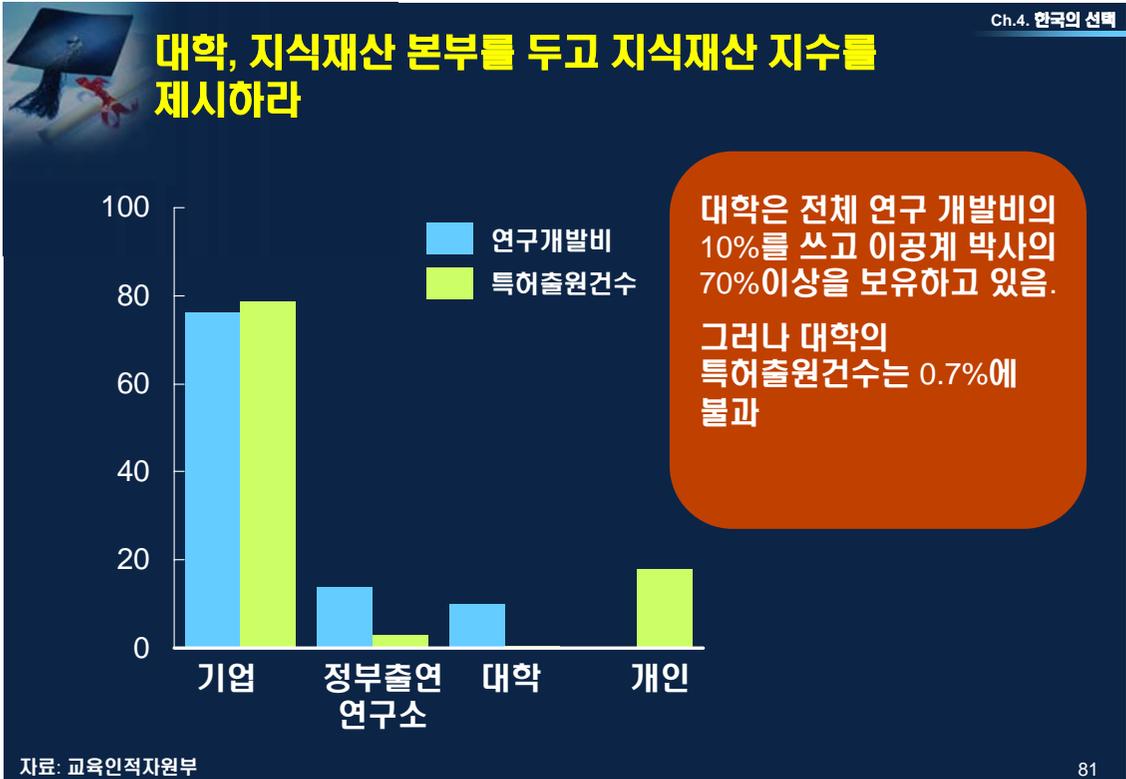
- ① 다양성을 동방학습지국 최고의 덕목으로
- ② 교육은 최선의 복지, 학습복지국가로 가라
- ③ 시대변화에 맞게 학제를 개편하라
- ④ 유비쿼터스 학습 체제 구축
- ⑤ 교육은 21세기의 반도체, 전략산업으로 키워라
- ⑥ 교육 시장을 개방, 영어를 생활화하라
- ⑦ **산학, 지식 창출의 파트너가 되라**
- ⑧ 정부, 평가와 정보공개로 거듭나라
- ⑨ 서울대, 자유를 원하면 정부에서 떠나라
- ⑩ 학교, 시민정신 키우는 지역공동체가 되라

제언 7. 산학, 경계를 허물고 지식창출의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대학과 기업은 이제 혼연일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의 대학은 아직도 너무 고고합니다.

담장을 허물고 기업, 특히 벤처와 중소기업 현장으로 과감히 들어서야 합니다.



대학의 연구개발비는 기업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의 자료에 따르면 특허 점유율 및 출원건수는 기업에 비해 0.7%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가장 큰 이유로 대학과 산업의 괴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학은 기업과 함께 지식재산창조의 원천으로 재 탄생해야 합니다.

각 대학마다 지식재산본부를 두고 대학이 보유한 전문인력과 특허권 등등을 지식재산 지수로 계량화해 평가와 지원을 받을 것을 제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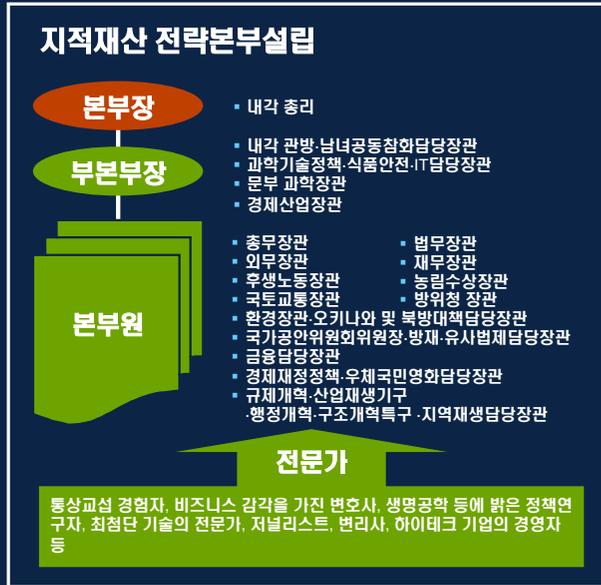


정부는 국가 안보 수준의 지식재산 전략기구를 설치하라



일본의 지적 재산 입국 전략

- 2001년 민간에서 '지적재산국가전략 포럼' 발족
- 국제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에 의해 국부를 창조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
- 기업, 연구기관, 지적재산의 창조활동을 유지하도록 사회적 기반 조성
- 대학, 교육, 입법, 기업, 행정, 외교, 사법의 7가지 개혁을 제안



선진국은 국가안보차원에서 특허권, 산업재산권, 특허권 등 각종 지식 재산권을 창출하고 보호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일본은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설치한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너무도 소홀히 다루고 있습니다.

줄기세포연구의 세계적 업적을 쌓은 황우석 교수의 경우 전세계 특허출원에 소요되는 돈을 모으기 위해 한동안 연구를 접어야 했다는 후문입니다.

국가가 앞장서서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산학협력은 물론 **NSC** 즉, 국가안보위원회 수준의 전략기구를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 ① 다양성을 동방학습지국 최고의 덕목으로
- ② 교육은 최선의 복지, 학습복지국가로 가라
- ③ 시대변화에 맞게 학제를 개편하라
- ④ 유비쿼터스 학습 체제 구축
- ⑤ 교육은 21세기의 반도체, 전략산업으로 키워라
- ⑥ 교육 시장을 개방, 영어를 생활화하라
- ⑦ 산학, 지식 창출의 파트너가 되라
- ⑧ **정부, 평가와 정보공개로 거듭나라**
- ⑨ 서울대, 자유를 원하면 정부에서 떠나라
- ⑩ 학교, 시민정신 키우는 지역공동체가 되라

제언 8. 정부는 관치를 던지고 평가와 정보공개로 거듭나야 합니다.

교육의 모든 부문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이 **OECD**의 결론입니다.

정부는 다양한 교육소비자의 요구에 부응,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교육기관에 대해 엄격하고도 수준 높은 품질평가를 내림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을 도와주는 쪽으로 역할을 정립해야 합니다. 정부의 재정지원 역시 여기에 바탕을 뒀야 합니다.

OECD가 '국제고등교육 품질보장 가이드라인'을 작성, 각국 정부에 권고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고교 등급제 논란과 관련, **OECD** 전문가들은 교육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자체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것이라면 세세한 부분까지 권장할 사항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고등교육을 시작으로 엄정한 평가를 확대하라



CHEA

- 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
- 산하에 지역 및 특별인증기관 60개, 3000개 고등교육기관 담당
- 17명의 대학 총장, 기관 대표, 정부 인사들로 이사회 구성
- 3년-10년 주기로 평가인증 실시



QAA

- The Quality Assurance Agency for Higher Education
- 1997년 영국 고등 교육의 통합적 품질 보장 서비스를 위하여 창립
- 14명의 대표로 이사회 구성, 대학과 기술대학 평가
- 연례 보고서 발표, 평가 훈련 실시 등



NIAD-UE

- 2003년 The National Institution for Academic Degrees and University Education 확대 개편
- 2004년부터 고등교육기관 등이 7년마다 평가 의무화, 결과 공개

자료: 고등교육의 품질 보증을 위한 평가인증제도 도입방안 검토, 주 OECD 대표부 (2005)

84

교육의 모든 부문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이 **OECD**의 결론입니다.

정부는 다양한 교육소비자의 요구에 부응,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교육기관에 대해 엄격하고도 수준 높은 품질평가를 내림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을 도와주는 쪽으로 역할을 정립해야 합니다.

정부의 재정지원 역시 여기에 바탕을 뒀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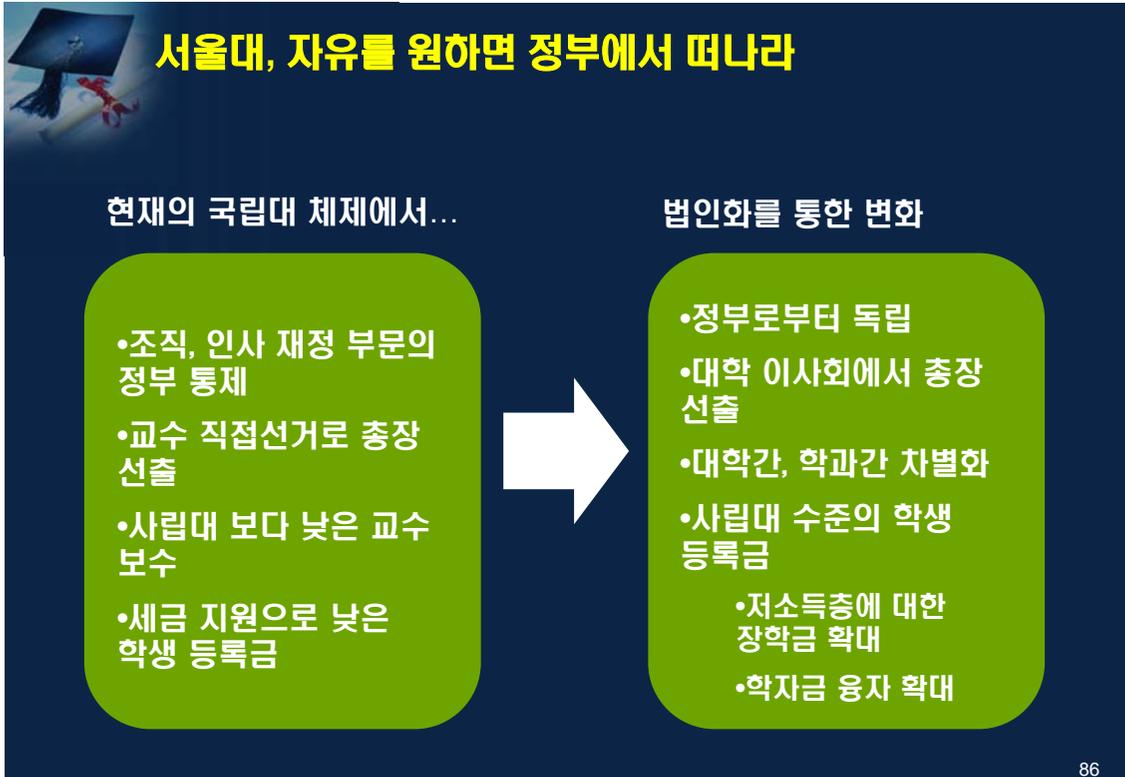
선진국의 공통점은 국제수준의 교육평가인증제도(**evaluation & accreditation system**)를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OECD는 '국제고등교육 품질보장 가이드라인'을 작성, 각국 정부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원에 대한 평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평가정책은 국제사회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인정 받고 고등학교의 학업성취도와 대입 수능 자료 역시 같은 맥락에서 평가 받고 공개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 ① 다양성을 동방학습지국 최고의 덕목으로
- ② 교육은 최선의 복지, 학습복지국가로 가라
- ③ 시대변화에 맞게 학제를 개편하라
- ④ 유비쿼터스 학습 체제 구축
- ⑤ 교육은 21세기의 반도체, 전략산업으로 키워라
- ⑥ 교육 시장을 개방, 영어를 생활화하라
- ⑦ 산학, 지식 창출의 파트너가 되라
- ⑧ 정부, 평가와 정보공개로 거듭나라
- ⑨ **서울대, 자유를 원하면 정부에서 떠나라**
- ⑩ 학교, 시민정신 키우는 지역공동체가 되라

제목 9. 서울대, 자유를 원하면 정부에서 떠나라



본고사 부활 논쟁에서 보듯 서울대학은 현실적으로 한국 교육의 풍향계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큰 국립대학이기 때문입니다

대학은 마땅히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OECD** 전문가들은 서울대학이 온전히 누리려면 정부로부터 독립, 다른 대학과 동등한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적 의존은 물론 공무원의 신분도 내던져야 합니다.

일본 동경대 처럼 서울대학도 자유를 원한다면 과감히 법인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다른 국립대 역시 선택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 ① 다양성을 동방학습지국 최고의 덕목으로
- ② 교육은 최선의 복지, 학습복지국가로 가라
- ③ 시대변화에 맞게 학제를 개편하라
- ④ 유비쿼터스 학습 체제 구축
- ⑤ 교육은 21세기의 반도체, 전략산업으로 키워라
- ⑥ 교육 시장을 개방, 영어를 생활화하라
- ⑦ 산학, 지식 창출의 파트너가 되라
- ⑧ 정부, 평가와 정보공개로 거듭나라
- ⑨ 서울대, 자유를 원하면 정부에서 떠나라
- ⑩ **학교, 시민정신 키우는 지역공동체가 되라**

제언 10. 학교는 이제 지역사회로 녹아 들어 시민정신을 키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학교로

경기도 광명시의 경우



- 평생학습원, 시민 대학 개설
- 저녁시간 공개강좌, 주부 학습 동아리 등 제공
- 평생교육 화폐 '그루'사용, 학습을 상호교환

88

OECD시나리오에서 보듯 학교는 청소년 교육 뿐 아니라 소외된 이웃의 지식격차를 줄이며 낙후된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사회 센터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공회 대학이 경기도 광명시와 펼치는 평생학습 사업은 주목 받아야 합니다.

1999년 국내 최초로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한 광명시는 성공회 대학의 적극적인 파트너 십을 바탕으로 평생학습원 시민대학을 개설했으며 '그루' 라는 상부상조의 지역화폐까지 만들어 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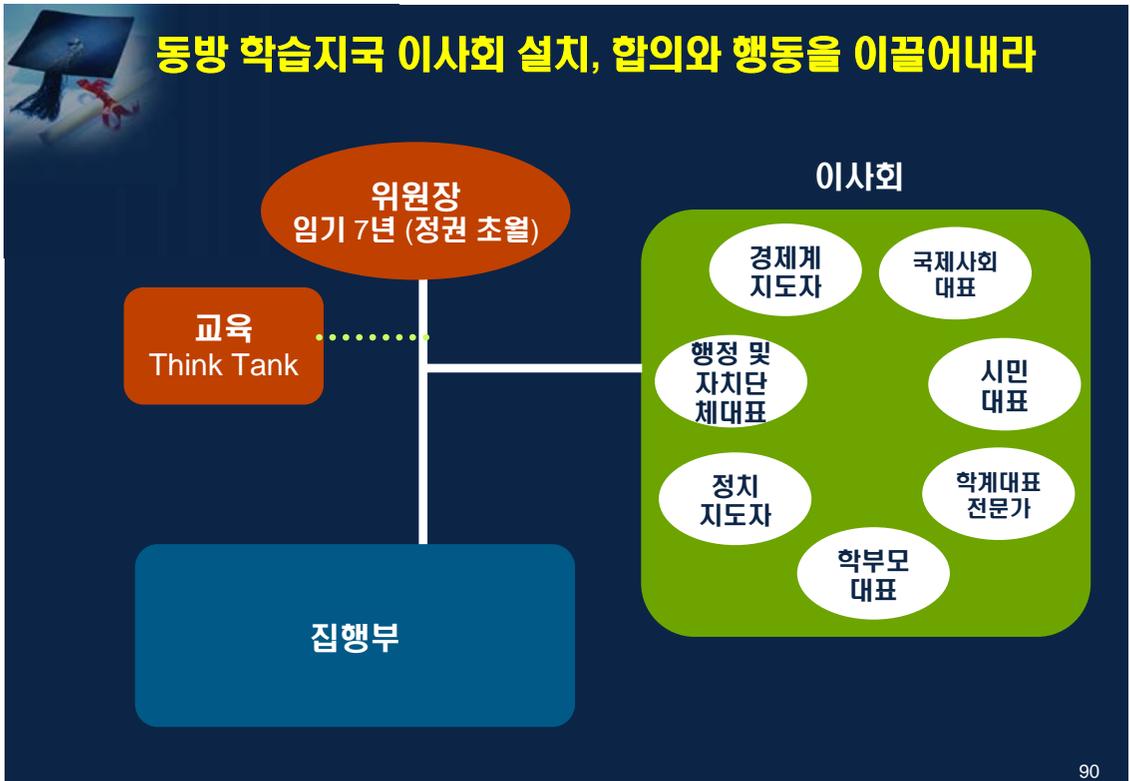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광명시의 사례는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와 지방 교육청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방학습지국 이사회를 만들자

89

마지막으로 동방학습지국 이사회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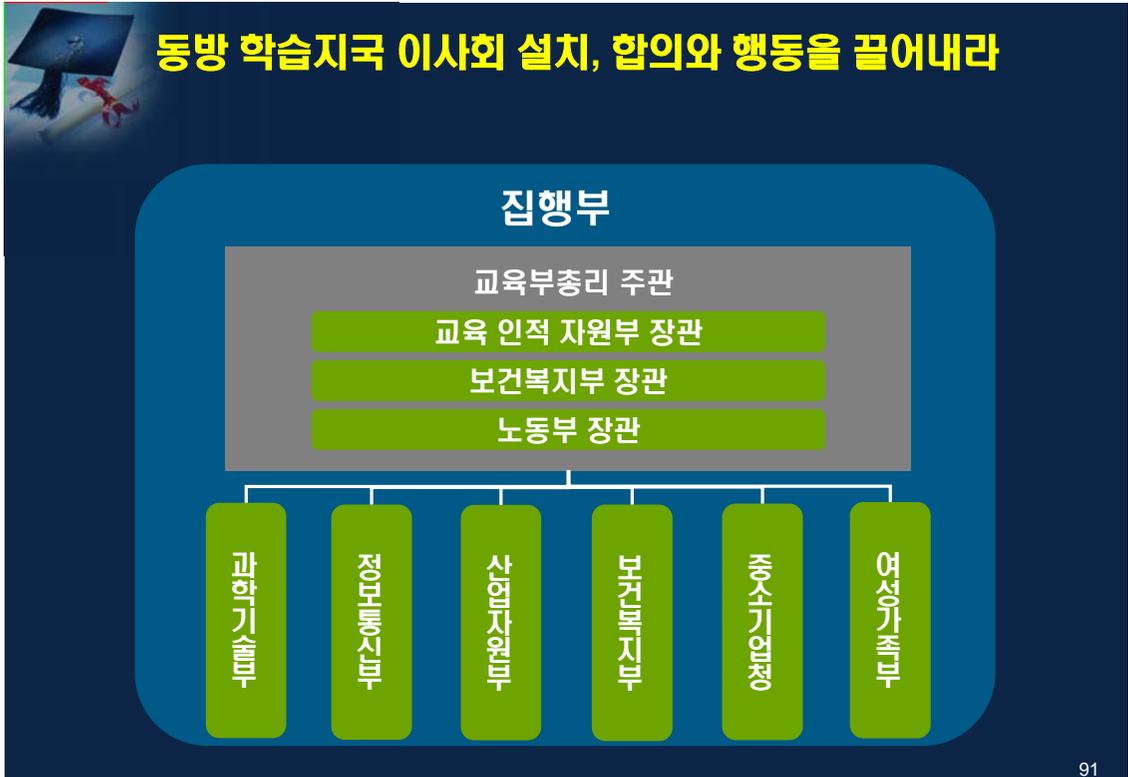


지금까지 말씀 드린 동방학습지국을 위한 10대 제언,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그러나 당연한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선 대담한 발상과 과감한 실천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동방학습지국 이사회 설치를 마지막으로 제안합니다.

이사회는 대통령 임기를 초월, 임기 7년의 위원장을 두고 교육계 지도자와 경제계 지도자, 예산관련 행정부 대표, 지방자치단체 대표, 학계와 과학계 대표, 학부모 대표, 국회와 시민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전문 싱크탱크의 뒷받침으로 미래한국을 설계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이사회의 존속기간은 그 임무가 달성될 때까지 정권을 초월해 항구성을 보장받습니다.



집행기구는 교육부총리를 주축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노동부 장관이 연대 책임을 지고 중장기적으로는 3대 부처를 ‘학습고용복지부’로 통합해, 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사회복지정책을 종합토록 합니다.

4조원에 불과한 인적자원개발 예산을 놓고 14개 부처가 경합하는 현체제로는 중복과 혼선의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학습과 고용 그리고 복지의 통합된 그림 속에서 산업자원부, 과기부, 정통부, 여성가족부, 중소기업청 등 유관부처도 유기적인 임무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집행부 대표는 분기별로 진행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성과를 평가 받습니다.

한편 지방자치와 지방교육행정을 일원화해 지역별로 선의의 교육경쟁이 일어나도록 하고 대학을 비롯 각 교육기관은 총장이나 교장 선출제도의 개선을 통해 리더십을 이끌어낼 지배 구조를 만듭니다.

선진한국, 동방 학습지국으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동방학습지국, 그러나 모두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로젝트팀, 도움주신 분

SBS 프로젝트팀

서두원 부장
 김상협 차장
 한주한 기자
 조미호 PD
 김유진 연구원 (이상 미래부)
 권태훈 기자 (사회부)
 정호선 기자 (경제부)
 전수미 작가
 이은영 AD

OECD

Barry McGaw
 -Director of the Directorate for Education
 Bernard Hugonnier
 -Deputy Director of the Directorate for Education
 Abrial Hasan
 -Head of Education and Training Policy Division, Directorate for Education
 Richard Yelland
 -Head of Institutional Management in Higher Education, Directorate for Education

도움주신 분 (가나다 순)

강연홍 교육인적자원부 정책보좌관
 권오규 주 OECD 대사
 김관복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총괄과장
 김광조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
 김광호 국무조정실 인적자원개발 연구개발기획단 팀장
 김명신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대표
 김진경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
 김천홍 교육인적자원부 사무관
 문국현 유한 김벌리 사장
 민선식 YBM 시사영어사 사장
 박경양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백재현 광명시장
 백지원 McKinsey & Company 비주일 담당
 송 자 ㈜대교 회장
 어윤대 고려대학교 총장
 오세정 서울대학교 자연대학 학장
 윤성식 정부혁신위원회 위원장
 이병곤 광명시 평생학습원 원장
 이영 한양대학교 교수
 이영찬 교육인적자원부 사무관
 이주호 국회의원
 정운찬 서울대학교 총장
 조규향 방송통신대학교 총장

베리 맥고 기초연설 Sync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한국인들보다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평가를 더 잘 해놓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에 도전해야 하는지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의 강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한국의 교육열에 대해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제 통계치를 보면 한국의 교육열이 얼마나 뛰어난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우선 OECD 국가별로 비교해 본 숫자입니다.

고등학교 교육까지 이수한 자들을 본 것인데요,

일단 45 세에서 54 까지의 분포를 보면, 고등학교 교육까지 이수한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20 년이 흐른 뒤 25 에서 34 세의 분포를 보면,

한국의 세계 1 위의 교육 이수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대학교육 이상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한 번 보겠습니다.

45 에서 54 세군에서, 한국의 경우 상당히 낮은 대학교육 이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20 년 후 25 에서 34 세군의 대학교육 이수율을 살펴보면,

캐나다와 일본만이 한국을 앞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구의 15% 가량만이 대학교육을 이수하던 예전과 비교해서,

20 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는 50%에 가까운 사람들이

대학교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이 많은 교육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훌륭한 교육을 받는지도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근에 읽기, 수학 그리고 문제해결 능력과 관련,

OECD 국가의 15 세 평균을 3 년 마다 한 번씩 측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15 세 기준의 수학 성적을 평가해보면,

최고의 수학 성적을 내고 있는 학생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살펴보더라도, 한국 학생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단계 정도를 보면, 한국의 경우 2 단계 이하의 수학 성적을 성취하고 있는 학생들이 10%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 단계 이상이 90%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교육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받은 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비교 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학업 성취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교육의 형평성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학과 관련해서 학업 성적의 분포를 살펴보면,

얼마나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지 각 기둥의 높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OECD 국가들의 학생들이 얼마나 큰 성적분포를 보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통계치입니다.

터키의 경우에는 상당히 큰 성적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평균입니다. 이 기둥을 조금 조정을 해봤습니다.

파란색 부분의 경우에는 학생들 간의 성적 편차가

학교 내에서 얼마만큼 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주황색 부분은 학교간의 편차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 끝에 있는 국가들을 한번 보시고,

오른쪽 끝에 있는 나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끝에는 아이슬란드와 핀란드, 노르웨이,

그리고 스웨덴과 같은 나라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주황색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의 다 파란색의 기둥만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나 핀란드, 스웨덴에 살고 있는 학부모의 경우,

내 아이가 어느 학교에 가던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수준의 교육을 어디에 가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학교간의 편차가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왼쪽 끝에 있는 나라들은 설계에 의해서 학교간의 편차를
일부러 만들기도 합니다.

12 세 이상부터 비슷한 학생들끼리 모이도록

학교의 제도를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안의 편차를 최소화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정식으로 학교간의 편차를 일부러 만들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학교간의 편차는 상당히 존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학교 간 편차의 66%가
사회 경제적인 배경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교 간 편차의 66%가
학부모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에 기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와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고,
핀란드와 같은 나라와 비교해볼 때 상당히 큰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표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학교 제도가 과연 아이들이 아이들답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시간을 살펴봤습니다.
맨 끝에 한국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학교 안에서 보내고 있는 시간이 35 시간 이상입니다.
스웨덴에서는 아이들이 20 시간 정도만 학교에서 지낸다고 합니다.
과외에 들이는 시간을 보면, 한국 아이들은 주당 50 시간가량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핀란드를 표시 해놓았는데,
핀란드와 한국은 학업성취도 면에서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학생들에 비해서 핀란드 학생들은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공부에 들이는 시간이 상당히 적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만큼 학업성취도를 유지하면서, 시스템 안에서 아이들이 아이들답게
자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
두 가지 사항을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의 틀 밖에 있는 두 가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단 5 개국만이,
한국만큼 조기 유아교육에 적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육보다 조기 유아교육에 적게 투자를 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가장 심한 정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한 다른 조사에 의하면 평생교육, 성인교육도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 정규직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굳이 공부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승진 같은 것들이 연공서열에 의한 것이 많기 때문에 별로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물론 승진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 교육과정을 마친 후, 성인들을 위한 교육을 활성화시킬 방안들에 대해서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교육의 차원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질적 수준을 보고 있는데요, 학교 이전 유아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학교 이후의 평생 교육대해서는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학교 교육에서는 경쟁이 너무 심한 반면,

평생교육에서는 경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대학교육에서 한국 학교들의 경쟁력이 낮을까' 라고 고민하신다면 교육에 관한 연구 등을 보다 활성화 시켜야 될 것 이구요, 이를 통해서 대학교육의 경쟁을 더욱더 치열하게 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대계와 정부의 구상

2005. 9.

- ◇ 행사 : SBS 제 3 차 미래한국리포트 발표회
- ◇ 대상 : 발표회 참석자 약 420 명
- ◇ 일시 : '05. 9. 15(목) 07:30 - 08:30
 👁 발표시간 : 08:10 경 (약 8 분)
- ◇ 장소 :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

교육인적자원부

시작 말씀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입니다.

이처럼 뜻 깊은 자리에 초청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발표회를 준비하신 SBS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오늘 보고된 **제 3 차 미래한국리포트**는 한국 교육이
처한 현실과 문제점을 가감 없이 예리하게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東方學習之國의 비전**'으로 제시한 10 대 제언은
하나하나가 모두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과제와 미래의 비전이었습니다.

또한,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부족** 등 우리
사회가 처한 위기의 **열쇠를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는**
기조 발표를 들으면서 교육 정책의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최근 10 여 년 동안 우리는 1 인당 국민소득 1 만 달러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우수한 인적자원의 양성과 관리를 위한 사회 전체의 시스템을 발전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초중등교육에서는 국제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으나, 낮은 학습동기와 창의성 부족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으며, 입시 경쟁으로 인한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은 국민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대다수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으나, 세계 수준의 대학이 없고, **대학의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성인들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21.6%로서 55%인 핀란드에 훨씬 못 미치고 OECD 평균과 비교해도 절반 정도에 불과한 점은, 조기퇴직이 많고 중·고령자의 능력 개발이 시급한 우리 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평생학습 참여율 : 한국 21.6%('04), 핀란드 55%, OECD 평균 36%('02)

전 인구의 반인 여성 인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젊은 남성들이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병역 복무 기간이 인력 개발에 장애로 작용하는 등 인적자원 개발의 누수가 많은 점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 49.8%('04), 군복무자 중 전문대 이상(85%)

2. 교육 및 인적자원 정책의 방향

이러한 교육 부문의 한계를 극복하고, **평생학습국가**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인적자원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초·중등교육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대학입시 제도를 단순한 선발 기능에서 탈피하여 국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여 배출하는** 장치로 활용되도록 하고,

동료 및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평가를 통해 교직사회에 건전한 경쟁을 도입하여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며,

자율학교 확대 등 **평준화 제도의 보완과**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 등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직장으로, 직장에서 학교로의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과 학습을 연계할 수 있는 단계적 **학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디지털 시대에 어학연수를 위해 해외로 나갈 필요 없이 국내에서 원하는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중학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확대 배치 등을 통해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산업 수요와 연계된 다양화·특성화된 대학을 육성하여 대학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제조업은 어느 정도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만, 서비스업의 경우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전문 서비스 인력의 양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 우리나라 서비스부문 노동생산성을 100으로 했을 때 **미국 217, 일본 193('00)**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s)에 맞는 전문 서비스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의료, 법률, 경영, 금융, 물류 분야의 전문대학원 체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두뇌한국 21 사업(Post-BK21)으로 핵심 인력을 매년 2만명씩 양성하는 등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이 산업 및 지역의 수요에 맞추어 특성화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가 보다 **합리적으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대학간 경쟁을 유도**하여 대학이 수요자의 요구에 맞추어 혁신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모든 국민들이 교육을 통해 미래의 희망을 키워 나가는 학습복지국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교육 여건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보육과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도입된 '학자금 용자제도'를 확대하여 가정형편으로 인해 대학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를 성인학습자들을 위한 학자금 용자(Loan)로 확장하는 등 평생학습을 위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군인, 장애인, 재소자, 외국인 근로자와 그 자녀 등 **인적자원개발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도록 배려하겠습니다.

넷째, 여성 인력이 더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진로지도를 강화하여 **과학기술 분야, 학계 등 전문 직업 분야**로의 여성 진출을 확대하고, 결혼 또는

육아로 인해 퇴직한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능력 개발**을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여성이 불리하지 않은 직장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다섯째, 우수한 정보 인프라를 기반으로 e-러닝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것입니다.

EBS 수능강의와 인터넷을 통한 가정학습서비스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여, 농어촌의 학생도 대도시의 학생과 같은 교육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 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에 투자하는 정부 부처가 교육인적자원부만은 아닙니다. 현재 **14 개 부처**에서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총 투자 예산은 **약 4 조 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각 부처가 대학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인적자원개발 사업의 경우 **중복 또는 예산의 과다 지원에 대한 조정 수단이 없어**, 재정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보다 적은 투자로 보다 큰 성과를 올리기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인적자원개발 추진 체제를 혁신**하고자 합니다.

산업계·노동계 등 인력 수요 부문을 참여시켜 인적 자원 수요 부문의 요구가 수월하게 정책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제 2 차 5 개년 **인적자원개발 기본 계획**을 통해, 앞서 말씀드린 과제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맺음말씀

여러분!

우리는 오직 사람의 힘으로 숭한 기적을 이룬 우수한 민족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통해 이룬 기적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으로서 **많은 나라들이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사람과 지식, 즉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선두 주자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처럼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SBS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참석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